

第11回 在日・日・韓 NCC 女性委員会 連帯交流会議

「主に接ぎ木された者として」

～周縁化された場で手をつなぐ私たち～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자로서

～소외된 곳에서 손을 잡는 우리들～



2023年11月15日(水) 15時～17日(金)13時

会場：在日韓国基督教会館(KCC)5階

目次 목차

プログラム 프로그램	1
挨拶 인사	2
参加者名簿 참가자 명단	6
講師紹介 강사 소개	9
開会礼拝 개회예배	10
主題講演 주제강연	12/18
ディスカッション 패널토론	25/28
発題 발제	32/34
聖書研究 성경연구	38/40
閉会礼拝 폐회예배	42/46
資料자료 1 아시아의涙 아시아의 눈물		51
資料자료 2 この指とまれ 여기 여기 모여라		52
資料자료 3 第 10 回 韓・在日・日 NCC 女性委員会連帯交流会議宣言文		53
제 10 차 한・재일・일 NCC 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 선언문		54

プログラム 프로그램

11 月 15 日(水)		11 月 16 日(木)		11 月 17 日(金)	
15 時	登録 등록	9 時	KCC 会館集合 KCC 회관집합	10 時	聖書研究 성경연구
15 時半	開会礼拝 개회예배	9 時半	フィールドワーク 영화 감상	11 時	声明文発表・ 採択 선언문 발표 채택
16 時	挨拶・紹介 인사・소개	11 時半	分かち合い 나눔의 시간	12 時	閉会礼拝 폐회예배
16 時半	主題講演 주제강연	12 時半	昼食 점심	12 時半	挨拶・お知らせ 인사・광고
17 時半	ディスカッション 패널토론	14 時	発題 발제	13 時	解散 해산
19 時	会場移動 이동	15 時	グループワーク 조별 모임		
19 時半	歓迎会*要申込 환영회	16 時	分かち合い 나눔의 시간		
21 時	解散 해산	18 時	夕食 저녁		
		19 時半	声明文作成 선언문 작성		
			フリータイム 자유 시간		

挨拶 인사

Welcome to Osaka!

在日大韓基督教会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崔美惠子^{ちえみへじゃ}副会長

みなさまこんにちは。ようこそお越しくございました。

六年ぶりの開催となりますこの日・在日・韓連帯交流会議で、皆さまとお会いでき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

第11回目となります今回、我們在日がホストとして、初めてこの連帯交流会議を開催できることにスタッフ共々大きな感謝と喜びを感じております。

当初は日本と韓国との連帯交流会議でしたが、そこへ在日という枠をつくってくださり、在日の私たちが抱えている差別などの問題を一緒に分かち合い、取り組んでくださる事を感謝いたします。

平和と平等が叫ばれてきました。しかしまだ、女性だから、外国籍だからと中心からはずされ、端に追いやられ、さらにその状況に慣らされている群れが依然として存在します。私たちは皆、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によって生かされています。主に接ぎ木された者として、お互いを知り、受け入れ、手をつないでいき、韓国と日本はもちろん世界の平和のために祈り、つながり続ける私たちであ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三日間、一緒に学び、一緒に美味しいものを食べ、楽しい時間を共にいたしましょう。

この連帯交流会議が皆さまにとりまして有意義な時間となりますことを願い、開会の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재일대한기독교회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최미혜자 부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6년 만에 개최되는 이 일·재일·한 연대교류회의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11 회가 되는 이번엔, 저희 재일이 호스트로서 처음 이 연대교류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에 스텝들과 함께 큰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처음 시작은 일본과 한국과의 연대교류회의였습니다만, 거기에 재일이라는 틀을 만들어 주시고, 재일인 우리가 안고 있는 차별 등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일을 도모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와 평등을 외치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이라고, 외국 국적이라고, 중심에서 벗어난 가장자리로 밀려지고, 더하여 그러한 상황에 익숙한 집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살고 있습니다. 주에게 접목된 자로서,

서로를 알고, 받아들이고, 손을 잡고,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 연대가 이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일간, 함께 배우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눕시다.
이 연대교류회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회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ようこそ大阪へ！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NCC J)女性委員会
北村恵子 委員長

アンニョンハセヨ チョヌン キタムラケイコイムニダ
チャル プタカムニダ

ようこそ大阪へ！

6年ぶりの連帯交流会議をご一緒できて、心から歓迎いたします。
初めての方、久しぶりの方たちと、この3日間を有意義に過ごしたいと思います。

「主に接ぎ木された者」今、パレスチナではオリーブの木が根こそぎ切り倒されています。
来年の世界祈祷日の式文作成国はパレスチナで、式文の中にもオリーブの木が出てきます。
オリーブの木は樹齢が長いので、中にはイエスの生涯を見ていた木もあるそうです。「隣
りの人と手をつなぐだけで、ひとりじゃないから怖くはない」と感じられる。
これは子ども式文の一節です。

今パレスチナで苦しんでいる子どもたち、またこの日本で生まれ育ちながら、学ぶ権利
を奪われている朝鮮学校の子どもたち～。空から爆弾が落ちてこなくても、無視、無関心
という武器にさらされて生きている子どもたちがここにいること、そしてどこの国の子ども
たちも、この国に生まれて本当に良かったと思えるような社会を作っていきたいと思っ
ます。このような不安定な時期に開催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が、「接ぎ木」として生かさ
れることになる、その意味を、ご一緒に考えて過ごしたいと願っています。

일본기독교협의회(NCC J)여성위원회
기타무라 케이코 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무라 케이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사카에 잘 오셨습니다!

6년만의 연대교류회의를 다 함께 모여 개최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참석하시는 분, 오랜 만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번 3일간을
유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접붙임 된 사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올리브나무가 뿌리채 뽑혀 쓰러져 있습니다. 내년 세계기도일의 예배 문의 해당 국가는 팔레스타인으로 예배 문에 올리브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리브 나무는 수령이 길기 때문에 그 중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 올리브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는 것으로도 혼자가 아니기에 두렵지 않아」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아이들용 예배 문의 한 구절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괴로워하는 아이들, 또 이곳 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배울 권리를 박탈 당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기에 지금 있다는 사실, 또 어느 나라의 아이들도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작금의 불안정한 시기에 개최 할수 있는 것이 「접붙임 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그 의미를 다같이 생각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한.재일.일 기독교여성들에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주연 사관

샬롬,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인 구세군의 김주연 사관입니다. 저는 지난 35 년가까이 구세군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으며 1 월부터 새롭게 NCCK 사역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한국을 떠나 일본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뵈게 되니 마음이 매우 설레고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 년부터 양국의 기독교 여성들이 상호 존중과 신뢰가운데 연대하면서 꾸준히 그 관계를 긍정적으로 쌓아왔다는 것이 새삼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간 정부나 일반 단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소통과 신뢰 그리고 협력가운데 종교의 힘으로, 때론 여성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게 되며, 이 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이번엔 처음으로 재일한국인/조선인들의 삶을 금번 모임의 주제로 정했다고 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들의 삶을 직접 경청할 기회가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준비하던 중에,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한국인들이 조선학교(우리학교) 방문을 못하게 되어 매우 난감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영화나 간담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또한 이 일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한편 기대가 됩니다. 금번 모임과 상호교류를 위한 준비과정에 보여주신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에 한국 측에서 저를 포함해 부위원장과 위원, 실무자 등 9 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환대해주시고 모임을 잘 준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후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매 순간 마음과 지혜를 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성원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連なる韓・在日・日キリスト女性たちへ

韓国キリスト教教会協議会(NCCK)委員長
きむじゅよん
金珠蓮 士官

シャローム、平和の挨拶を申し上げます。

私は韓国基督教教会協議会の女性委員会の委員長である救世軍の金珠蓮士官です。私は過去 35 年近く救世軍で様々な働きをし、1 月から新たに NCCK の働きにも参加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ような私が韓国を離れ、日本に来て皆さんにお会いできて心がとてもワクワクし、一方では重い責任を感じています。

考えてみれば、韓国と日本の関係は最も近い隣国でありながらも、歴史的にはとても複雑で微妙に絡み合っています。それにも関わらず、1996 年から両国のキリスト教女性たちが互いに尊重と信頼の中で連なり、着実にその関係を肯定的に築いてきたことに改めて驚き、神様に感謝します。これまで政府や一般団体ができなかった事を、疎通と信頼、そして協力の中で、宗教の力で、時には女性の力で成し遂げた事実を誇りを持ち、これらの働きのために継続的に努力して下さった全ての方に感謝と尊敬の意を表します。

特に今回初めて、在日韓国人・朝鮮人の生を今回のテーマとして設定し、とても興味を持ちました。韓国で彼らの生活を直接聞く機会があまりないためです。しかし、会議を準備する中で、韓国政府の強硬な態度によって韓国人(韓国在住)が朝鮮学校(ウリハッキョ)を訪問することができず、非常に困惑し残念な心境です。しかし、映画や懇談会を通じて少しでも彼らの生を理解し、また、この事のために共に知恵を絞る機会を持つことができ楽しみです。今回の集まりと交流のための準備過程で、皆さまの広いご理解とご協力に深く感謝いたします。

最後に、今回、韓国側から私を含め、副委員長、委員、実務者など 9 名が参加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私たちを温かく迎えてくださり、この会議の準備をして下さった皆さまに改めて感謝いたします。これからの全ての日程を神様にお任せし、全ての瞬間、私たちの思いと知恵を分かち合える事を期待し、エールを送り、お祈りいたします。カムサハムニダ(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参加者名簿 참가자 명단

日本 일본

1. 北村恵子	기타무라 케이코	NCCJ 女性委員会 委員長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会 NCCJ 여성위원회 위원장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
2. 河内理恵	가와치 리에	NCCJ 女性委員会 副委員長 日本バプテスト女性連合 NCCJ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일본침례여성연합
3. 安田やまと	야스다 야마토	NCCJ 女性委員会 書記 日本福音ルーテル教会 NCCJ 여성위원회 서기 일본복음루텔교회
4. 野副めぐみ	노조에 메구미	NCCJ 女性委員会 会計 友和会 NCCJ 여성위원회 회계 우화회
5. 林節子	하야시 세츠코	NCCJ 女性委員会 委員 日本基督教団 NCCJ 여성위원회 위원 일본기독교단
6. 秋山成子	아키야마 세이코	NCCJ 女性委員会 委員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NCCJ 여성위원회 위원 일본카톨릭정의와 평화협의회
7. 瀬戸川美奈	세토가와 미나	NCCJ 女性委員会 委員 日本バプテスト女性連合 NCCJ 여성위원회 위원 일본침례여성연합
8. 茨木公子	이바라기 키미코	NCCJ 女性委員会 委員 日本基督教団全国教会婦人連合会 NCCJ 여성위원회 위원 일본기독교단전국교회부인연합회
9. アオキリエコ	아오키 리에코	
10. 篠田茜	시노다 아카네	日本YWCA 일본YWCA
11. 米澤澄子	요네자와 수미코	日本自由メソヂスト教団 일본자유침례교단
12. 宮内陽子	미야우치 요코	カトリック大阪高松大司教区社会活動センター・シナピス 카톨릭 오사카 다카마쓰교구 사회활동센터 시나피스
13. 垣内純子	가키우치 준코	桃谷学院中高等学校 모모다니학원 중고등학교
14. 森川晴子	모리카와 하루코	善きサマリア人修道会 선한 사마리아인 수도회
15. 北村加奈子	기타무라 카나코	日本バプテスト同盟 일본침례동맹
16. 上田律子	우에다 리츠코	日本キリスト教団 兵庫 일본기독교단 효고
17. 堀江有里	호리에 유리	日本キリスト教団 京都 일본기독교단 교토
18. 本村いづみ	모토무라 이즈미	救世軍 大阪女性部 구세군 오사카 여성부
19. 本村大輔	모토무라 다이스케	救世軍 구세군
20. 栗飯原由美子	아이하라 유키코	救世軍 京都小隊 구세군 교토소대

韓国 한국

21. 金珠蓮	キム ジュヨン	NCCK 女性委員会 委員長, 救世軍 NCCK 여성위원회 위원장, 구세군대한본영
22. 安美晶	안 미지ョン	NCCK 女性委員会 副委員長, 韓国教会女性連合会 NCCK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3. 崔素英	チェ ソヨン	NCCK 女性委員会 副委員長, メソジスト女性指導力開発院 NCCK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24. 李熙善	イ ヒソン	NCCK 女性委員会 委員, ソウル福音教会 NCCK 여성위원회 위원, 서울복음교회
25. 鄭玉鎮	ジョン オクチン	NCCK 女性委員会 委員, 韓国基督教長老会 NCCK 여성위원회 위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강남향린교회
26. 馬鎮英	マジニョン	救世軍 구세군대한본영
27. 林善美	イム ソンミ	NCCK 女性委員会 委員, イエジ教会 NCCK 여성위원회 위원, 예지교회
28. 崔恩榮	チェ ウニョン	NCCK 女性委員会 委員, 韓国女性神学者協議会 NCCK 여성위원회 위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29. 黃寶賢	ファン ボヒョン	NCCK 部長 NCCK 부장



在日大韓基督教会 全国教会女性連合会 재일대한기독교회 전국교회여성연합회

30. 宋福姬	ソンボクヒ	全国教会女性連合会 会長 名古屋 회장 나고야
31. 崔美恵子	チェミヘジャ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副会長 武庫川 부회장 무코가와
32. 高慶美	コギョンミ	全国教会女性連合会 書記 大阪 서기 오사카
33. 金錦順	キムグムスン	全国教会女性連合会 教育局 布施 교육국장 후세
34. 姜志鮮	カンジソン	全国教会女性連合会 財政局 大阪 재정국장 오사카
35. 尹豊子	ユンブンジャ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心のケア局 神戸 마음케어국장 고배
36. 金仁姬	キム이니	全国教会女性連合会 関西会長 京都 관서회장 교토
37. 梁律子	ヤンユルチャ	全国教会女性連合会 西部会長 神戸 서부회장 고배
38. 兪貞恵	ユジョンヘ	全国教会女性連合会 武庫川 무코가와
39. 金幸子	キムヘンジャ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大阪 오사카
40. 高守善	コスソン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大阪 오사카
41. 朴眞淑	パクジンスク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大阪 오사카
42. 金英子	キムヨンジャ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大阪 오사카
43. 林芳子	イム판ジャ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大阪 오사카
44. 金必順	キム필스런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大阪 오사카
45. 李恩順	이운스런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布施 후세
46. 崔好子	チェホジャ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大阪西成 니시나리
47. 崔春子	チェ춘ンジャ	全国教会女性連合会 高槻 다카츠키
48. 裴貞愛	페ジョン애	全国教会女性連合会 枚岡 히라오카
49. 朴栄子	パクヨンジャ	全国教会女性連合会 豊中第一復興 도요나카제일부흥
50. 朴首勁	팍스기온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堺 사카이
51. 鄭詩温	ジョン시오온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大阪 오사카
52. 石橋真理恵	이시바시 마리에	全国教会女性連合会 総務 NCCJ 女性委員会 委員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NCCJ 여성위원회 위원

講師

53. 長崎由美子	나가사키 유미코	日本基督教団 大阪聖和教会 일본기독교단 오사카세이와교회
54. 申英子	シンヨンジャ	日本基督教団 西九条ハニル教会 일본기독교단 니시구조 한일교회

講師紹介 강사소개

主題講演：北村恵子さん 주제강연：기타무라 케이코 씨

1948年東京生まれ。1968年恵泉女学園英文科卒業。1968年日本基督教団美竹教会にて平野保牧師より受洗。現在、日本基督教団新泉教会役員／オルガニスト、1988年「教会女性会議」の準備会から参加し、超教派のキリスト者女性との出会いの影響は大きく、教会の中で、<平場>を大切にすることをモットーにしている。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会 性・人権部門長、NCC 女性委員会委員長。

1948년 도쿄 출생. 1968년 케이센 여학원 영문과 졸업. 1968년 일본 기독교단 미타케 교회에서 히라노 타모츠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음. 현재, 일본 기독교단 신센교회 임원/오르가니스트, 1988년「교회여성 회의」의 준비회 일원으로 참가하면서 부터 초교파의 그리스도인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平場히라바:동등한 위치, 관계>를 귀중히 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있다.「일본 그리스도교 부인 교풍회 성/인권부문장」,「NCC 여성위원회 위원장」

発題：長崎由美子さん 발제：나가사키 유미코 씨

1956年静岡県生まれ。日本福祉大卒、大阪市生野区で保育士、障害児支援事業所で働く。日本基督教団大阪教区日韓宣教協約特別委員会委員長、生野地域活動協議会会長、朝鮮高級学校無償化を求める連絡会、大阪事務局長を務める。

1956년 시즈오카 출생. 일본복지대 졸업, 오사카 이쿠노구에서 보육사로 근무, 장애아 지원사업 근무, 일본기독교단 오사카교구 일한 선교협약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쿠노 지역활동 협의회 회장, 조선고등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 오사카 사무국장을 역임함.

聖書研究：^{しんよくんじや}申英子牧師 성서 연구：신영자 목사

北海道小樽市生まれ。在日大韓基督教会全国教会女性連合会 2代目総務。現在、日本基督教団西九条ハニル教会牧師、日本スピリチュアルケア学会スピリチュアルケア師、米国認定日本ハコミ研究所セラピスト認定臨床宗教師。主な共著：「闇から光へ—同化政策と闘った指紋押捺拒否裁判 証言と弁論要旨」社会評論社、「スピリチュアルケアを語る〈第3集〉臨床的教育法の試み」関西学院出版会、「総説実践神学」日本基督教団出版局、「女性と宗教の近代史」三一書房、翻訳「わたしの居場所はどこ？」教文館

훗카이도 오타루시 출생, 재일대한기독교회 전국 교회여성 연합회 제 2대 총무. 현재 일본기독교단 니시쿠조 한일교회 목사, 일본 영성케어학회 영성케어사, 미국 인정 일본 하코미 연구소 세라피스트 인정 임상 종교사. 주요공저「어둠에서 빛으로 —동화정책과 투쟁한 지문 날인 거부 재판 증인과 변론 요지」사회평론사, 「영성치료를 이야기 하다<제 3 집>임상적 교육법의 시도」관서학원 출판회, 「총설 실천 신학」일본기독교단 출판국, 「여성과 종교의 근대사」삼일서방, 번역「나의 자리는 어디인가?」교문관

開会礼拝 개회예배

司会：^{ちえみ へじゃ}崔美恵子(KCCJ)

奏楽：^{やんゆるちや}梁律子(KCCJ)

黙禱 묵도	—	同
連禱 리타니	夜明けを待って 새벽을 기다리며		
讃頌歌 찬송가 200	—	同
祈禱 기도		^{가와치 리 에} 河内理恵
聖書 성경	マルコによる福音書 마가복음 9:35		司会者
説教 설교	「福音を生きる」 복음으로 산다		^{きむびるすん} 金必順
聖餐式 성찬식	配餐 ^{ちえそよん} 崔素英・ ^{ふあんぼひよん} 黄寶賢・ ^{하야시세츠코} 林節子・ ^{こぎよんみ} 高慶美		金必順
頌栄 송영 1	—	同
派遣と祝福 파송과 축복	—	同

<夜明けを待って 새벽을 기다리며>

司 会 わたしたちの声にならないうめきを知っていてくださる神さま
 사회자 우리들의 숨죽인 신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会 衆 きょうまたあなたに呼びかけます
 회 중 오늘 다시 당신께 여쭙니다

司 会 神の国は来るのでしょうか
 사회자 주님의 나라는 올까요?

会 衆 神の国はもう来ているのでしょうか
 회 중 주님의 나라는 벌써 와 있을까요?

司 会 わたしたちは夜明けを待って あなたの声をたよりに ここまですすんでまいりました

사회자 우리들은 새벽을 기다리며 당신의 목소리를 믿고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会 衆 きょうここに集まっている人たち
このころの中の夜明けのイメージをいっそう豊かにしてください

회 중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마음속의 새벽 이미지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司 会 きょうここに来ることのできなった人たちの
希望がとぎれることのないように支えてください

사회자 오늘 여기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会 衆 わたしたちがまたひとつになることができる時 和解の時

회 중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화해의 때

司 会 共にあなたの奉仕のみわざを担って 人びととあなたに仕える道がひらかれる時

사회자 당신이 행하실 봉사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사람들과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一 同 その夜明けを待って わたしたちは切に祈ります みくにごきますように!

다함께 그 새벽을 기다리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マルコによる福音書 마가복음 9 : 35>

イエスが座り、十二人を呼び寄せて言われた。

「いちばん先になりたい者は、すべての人の後になり、すべての人に仕える者になりなさい。」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派遣と祝福 파송과 축복>

司 会 わたしたちは教会です。 神の派遣にあずかります。

사회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파견에 참여합니다.

會衆 わたしたちは希望と愛を持って世界に出ていきます。

회중 우리는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계로 나갑니다.

司會 わたしたちの生のただ中におられる神よ わたしたちの深みにいてください。

キリストの内におられる神よ わたしたちの正義の中にいてください。

霊において働かれる神よ わたしたちに力と真理と自由を与えてください。

사회자 우리의 삶 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에 계셔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지여. 우리의 정의 속에 계셔 주십시오.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여. 우리에게 힘과 진리와 자유를 주십시오.

— 同 — 아멘

다함께 아멘

主題講演

主に接ぎ木された者として 「わたしたちの物語—Her Story—を語り継ごう」

北村恵子 NCC 女性委員会 委員長

<はじめに>

1996年に始まった「日本・在日・韓国 NCC 女性委員会連帯交流会議」は、11回目を迎えました。今まで日本と韓国で交互に開催してきました。今年も、在日大韓基督教会全国教会女性連合会(以下：KCCJ 全国女性会)がある大阪・生野区で開催できることを、大変嬉しく思います。

それには3つの理由があります。

1つ目は、この「連帯交流会議は、<日韓>ではなく、<日本・在日・韓国>と、日本で暮らす在日コリアンキリスト者女性たちと一緒に作り上げるものだからです。

「<日韓>というときに、自分たちを在日コリアンの存在が見えなくされる」と声を挙げたのは、かつて KCCJ 全国女性会の総務だった故徐貞順(ソジョンソン)さんでした。NCCの企画するものにも<日韓>という名称の付いたものはいくつかありますが、その中には当然在日コリアンの人も入っています。それでも、<日本・在日・韓国>とはいわずに、<日韓>という政治的な用語でくくられています。そこには<在日コリアン>を外さないで欲しいという故徐貞順さんのような声は挙がりません。<多様性を尊重する>と言いつつも、男性中心の限界なのでしょう。

もうひとつの理由は、名前のことです。

わたしたちは一人一人、名前があります。ここに集まったわたしたちの共通点は、女性であること、キリスト者であること。同じ日本で暮らしていますし、漢字文化の中で暮ら

しています。ただその名前は、日本語の読み方しかできません。人と人が出会うとき、名前を正しく覚えるのが一番大切だと思うのですが、漢字は読めるけど、どう発音するのかが分からないのでは、本当に会うことが出来ないのではないか。今回は、帰るときまでに、一人一人の名前を、正確に覚えて帰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そして3つ目は、朝鮮学校無償化排除の問題を、現場で知るということです。このことに長く関わってきた長崎由美子さんのお話を聞くことで、この国に生まれ育った子どもたちが、母国の文化を大切にしながらも、この国に生まれてよかった！と心から思える、そのような社会をどうしたら作ることが出来るのかを、一緒に考えたいと思っています。

<「教会女性会議」のこと>

皆さんのなかに、「教会女性会議」という言葉を、今日初めて耳にする方もいれば、何度も参加したことがある、懐かしい集会だったと思い出す方もいると思います。

この「教会女性会議」がなかったら、現在のわたしは、このような形で話をするなどできなかつたでしょう。それほどこの「教会女性会議」は、「わが半生、ここにあり！」と断言できる大切な場所でした。

少し歴史的流れを説明します。

この「教会女性会議」は、1988年に超教派の女性によって始まりました。80年代に「女性と神学の会」という、主に女性牧師や神学生が中心になって例会をもっていたようですが、もっと信徒にも声をかけて、男性中心のキリスト教会を刺激したいと思っている人たちが集まって始まりました。今回聖書研究を担当される申英子（シンヨンジャ）さんも、最初の実行委員の一人です。なぜわたしが、この実行委員になったかということ、当時わたしの所属する新泉教会が無牧で、時々横田幸子さんという大泉教会の牧師が、月に一度、礼拝説教と“婦人会”の指導に来てくださっていました。多分その関係で、誘われたのだと思います。

約1年の準備の後、1988年9月22日～24日、埼玉県武蔵嵐山（ムサシランザン）の国立婦人教育会館（当時）を会場に、1回目の「教会女性会議」が開催されました。テーマは「教会は生きる、女性によって－わたしは教会のどこを変えたいか－」。参加者は子どもを含めて70名でした。以後2003年まで続きましたが、その後、「性と人権 キリスト教全国連絡会議」として新しい運動体となり、現在にいたります。

実は、このとき、わたしはまだ問題意識が低く、参加者リストを見て、牧師か信徒かが分かるように、牧師にはマル印を付けて欲しいと言いました。そのときにカーター愛子さんが、「そんなことは関係ないの！みんなオンナ！」と言ったのです。とても驚きました。今のわたしを知っている人には、笑い話のように思えるでしょう。でも35年前のわたしは、まだフェミニストということばも他人事のようなことばでした。

プロフィールにも書きましたが、わたしは<平場>の関係を大切にしています。それは、「みんなオンナ！」のひとことに目覚め、相手が牧師だろうと、大学の教授だろうと、たとえ<専業主婦>であろうと、肩書きよりも、お互いの人間性を尊重し合う、そのような関係性を築い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この第1回「教会女性会議」では申英子さんが説教をされました。

【「この会のテーマは、教会は生きる－女性によって－わたしは教会のどこを変えたいか」ですが、聞きようによっては、「教会は生きていない－わたしは教会のほとんどの部分を変えたい」とも響きます。ここに集まった女性たちは、<教会を成長させるのも、沈滞させるのも、わたしたち女性にかかっている>と、真剣に考えていると信じます。】

また女性教職の研修会で感じたことを、こう述べています。

【<あらゆる問題は聖書に戻れば解釈される>という主張が大半だったとのこと。現在は（35年前！）地球を破壊する恐ろしい力と戦う時です。世界のすべての人々と連帯しなくてはならない時に、キリスト教の用語や思考方法がそれをはばんでいるなら、また女性牧師たちが、男性指導者たち以上に、ドクマ（教理）の枠から一歩も解放されていないとしたら、<キリスト者女性>とは一体どういう存在なのでしょう。（中略）

わたしたちキリスト者は、<キリスト教はすべて正しい>という固定観念から一歩も出ていな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2000年前の一部エリート宗教者たちによって都合よく書かれた聖書を、無条件に聖なるものとして受け入れ、疑うことすらしていな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教会の体制が決めた教理を、後生大事にしてき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中略）教会の歴史や体制を論ずることは、自分がどこに立つかという実存をかけた問いです。】

以上は申英子さんの開会礼拝のメッセージからの引用です。聖書の読み方も、在日コリアンでキリスト者女性の立場から、深く、鋭い読み方をされています。「イエスのために引っ張ってこられた女の物語」（ヨハネ 8.1-11）では、イエスのために“道具”にされたことには触れず、一足飛びに「もう罪を犯さないように」と言っていますが、「わたしの裁きのためにすまなかった」と、イエスの謝罪の言葉が欲しかったと述べています。「あなたの罪は赦された」のこの一言のままで現状はひとつも変えられず、物語はここでストップしてしまいます。ここに聖書の限界がありますが、それを言うのは大変勇気のいることだと、申英子さんは述べています。

このように申英子さんの聖書の読み方は、在日コリアンであり、キリスト者女性の視点で聖書を読まれていたことに、改めて大きな気付きを与えられました。

この88年の「教会女性会議」で出会ったもう1人の在日コリアン女性は、故徐貞順さんです。「賛美と出会いのとき」というプログラムで、全国から参加者が短く地元を紹介しました。<大阪から>の部分は故徐貞順さんが読まれました。

「イカイノ（猪飼野 我が愛）」地図のない街

猪飼野—釜ヶ崎が差別につながると、愛隣地区とギマン的に衣替えされたように、猪飼野も生野となり、わずかに古い番地の札に残るだけ—

在日の恨（ハン）の街 猪飼野

今一番 エスニックといわれたり、最もインターナショナルの街といわれたり...

猪飼野が何処からきて何処へ行こうとしているのか

そんなことをまじめに考えようとしている「在日」たちが住んでいる街

ハルモニ（おばあさん）が、ハラボジ（おじいさん）が、二世三世たちが

マダン（広場）をかこんで チャンチ(宴会)をする街

苦難のアリランコゲ(峠)を超えてきたチェサ(祭祀)を今日もどこかでやっている街

昔 百済川とよばれ 汗とヌムル（涙）満ちた平野川がサンパルソン（38度線）を越えて流れる街

猪飼野って 哀しいけど 日本で一番美しい街かもしれない

故徐貞順さんがこの「教会女性会議」に参加されたのは、当時 KCCJ 全国女性会の総務をしていて、NCC 女性委員会にも会長と一緒に出席されていました。このとき故徐貞

順さんは、大阪から、〈ザ・イカイン・バンド〉という青年たちを呼んで、ギターの伴奏で2曲歌って下さいました。『アジアの涙』と『この指とまれ』です。（資料参照）

『アジアの涙』は日本に出稼ぎに来た女性の歌です。

『この指とまれ』は、指紋押捺へのプロテストソングともいえる歌です。

「指紋がイヤなら 国へ帰れー」との罵声に対して、

“生まれた時から みんなもっている 大切なこの指紋
この世にたった1つだけの大切な宝物
秀吉の耳塚が指塚に 変って行きました
けれど神様の贈り物 美しい指模様 うばうことはできません
巽のみんな この指とまれ”

1988年当時は、外国人登録法による指紋押捺制度がありましたが、1999年に廃止されたことは、皆さんの方が身をもって体験されていますので、わたしには語る資格はないのですが、たった1本の指に対しても（実際10本ですが）、このような理不尽な人権侵害があったことは、忘れてはいけないと思います。

故徐貞順さんは、1991年の「教会女性会議」で聖書による発題をされています。マルコによる福音書7章の「シリア・フェニキアの女」の物語を、在日コリアンキリスト者女性の立場で語っています。その中で、「福音は普遍的だから、民族差別など乗り越えられると思ってきた。だがこの世で差別されても、あの世で天国に行けるという発想は、この世の差別を助長し、温存して来たのではないか。差別されても、この世では我慢しなさい。こういう形で黙らされてきた。何もしていないのに、朝鮮から日本へ無理やり連れてこられて、こんな所で働かされて、従軍慰安婦にされて殺されて、被爆して、何の保障もなく放ったらかされて、それでも黙っていなさい。日本社会に対して告発をさせない抑止力に、キリスト教はなってきたのではないか。差別とは何か、福音は差別をしないのか。キリスト教は差別をしないのかと考えると、しんどくなります...。」

故徐貞順さんは、聖書を読む時に、注解書的なユダヤ人の宗教から、キリスト教は普遍的な世界宗教になっていったきっかけが、福音書の物語ですが、それを現実の状況に置き換えるのが大変むずかしいと述べています。なぜこの「教会女性会議」に関心をもって女性たちが集まるのか、それは、自由に自分の目で、あるいは、女性が、女性の視点で聖書を読みたいと聞いていますが、それをさせない教会教職が聖書の読み方を規定し、抑え、支配していく、教理もそういうふうになされてきたし、教会史も〈男の視点〉（History = His Story）で作られてきた。それはおかし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この会議の目的なのではないか。故徐貞順さんのこの「教会女性会議」への思いと、聖書の読み方のヒントは、納得のいくものでした。

申英子さん、故徐貞順さんの他にも、呉寿恵（オスヘ）さん、崔春子（チェチュンジャ）さんなども「教会女性会議」に参加され、発題や聖書研究を担当されました。それぞれに個人史（Her Story）を話され、分ちあいました。

あれから35年も経ったとは思えないのですが、当時、申英子さんや故徐貞順さんのことばが、35年経った今になって、初めて強く響いてきます。きっとそのときのわたしはまだ内容が理解できずに、ぼうっとしていたのだと思います。「いやなら出て行け！」と今も続いているヘイトクライムも、それを自分の痛みとして引き受けることができずにいることは、その罪に加担しているといわざるを得ません。

今年の6月に『日本におけるキリスト教フェミニスト運動史—1970年～2022年まで—』という本が出版されました。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研究プロジェクトの研究会の3年半にわたる共同研究の労作です。執筆者は、山下明子、山口里子、大嶋果織、堀江有里、水島祥子、工藤万里江、藤原佐和子。念入りな調査や話し合い、年表、講演録、など、とても内容の豊富な資料ですが、わたしは、この“教会女性会議”からの繋がりから、さらに身近な1冊として、ワクワクしながら読みました。特にオビに書かれていることは、「キリスト教の強固な家父長制と異性愛主義のただ中で、女たちは何を問い、何と闘い、何をめざしてきたのか。

男性中心的神学や教会組織への失望と怒り、そこから生じた葛藤や試行錯誤、学びや研究の積み重ね……50年余にわたる変革と抵抗の歴史が今、浮かび上がる…」

先ほどの「教会女性会議」以外にも、日本のキリスト者女性たちの活動が詳しく書かれています。

この中にも、「それぞれの経験—3、具体的な声を聴く」という項目で、申英子さんは「『在日』として、カウンセラーとして」個人史（Her Story）を語っています。

また第3章では、「在日キリスト者女性とフェミニズム」という題で、呉寿恵さんが、「在日」「女性」「キリスト者」をキーワードに、在日大韓基督教会の取り組みを紹介されていますが、在日コリアンのフェミニズム運動への取り組みはまだ十分ではないものの、課題が与えられていることを自覚的に受けとめることは、神の祝福だと思っていると述べています。

編者の大嶋果織さんがいうように、7人の出自や教派の偏りのために見逃してしまった事や、文献を頼りにしたためにこぼれ落ちてしまったこともあります。それも含めてわたしにとっては、1988年の「教会女性会議」から現在にいたるまでの「わが人生、ここにあり」という思いを強くしています。

今年、日本のジェンダー・ギャップ指数は146ヶ国中125位という不名誉な発表がありました。日本は、「人権後進国」だとはっきり言うことができます。天皇制はもとより、男性中心主義の国です。そのために一人の人間を個人として尊重する個人主義が育ちません。そのような社会構造は、性暴力や性搾取の温床になりやすいのです。そして辛うじて声を挙げて、その声は潰されます。

自分は日本軍「慰安婦」だったと勇気をもって最初に名乗り出た金学順（キムハクスン）さん。そしてその声に続いた宋神道（ソンシンド）さん、金福童（キムボットン）さん。映画『金福童』の中で、ソウルの日本大使館前での抗議集会の光景があります。「日本政府は謝罪せよ！」と大勢で叫ぶ中を、金福童さんはずっと黙ったままでした。けれどもその後「平和の少女像」の除幕式のときに、福童さんの表情が変りました。それは性被害者が、女性人権平和活動家へと変身した瞬間でした。

金福童さんの存在は、自分の受けた性暴力被害を告発したフリージャーナリストの伊藤詩織さんや、居場所を失い、新宿の街をさまよう少女たちの居場所作りをしているColabo代表の仁藤夢乃さんの活動を支え、励まし続けています。そのうえ、金福童さんは、日本の朝鮮学校で学ぶ生徒たちに、全財産を投げうって、「金福童の希望」という奨学金制度を作りました。金福童さんは勉強が好きで、教師になる夢を持っていたのですが、日本軍の「慰安婦」にさせられて、夢を叶えることが出来ませんでした。そして日本の朝鮮学校のことを知り、この奨学金を作ったと聞いています。

わたしは、「個人的なことは政治的なこと」というフェミニズム運動が始まった頃のこの言葉が好きです。初めて聞いたときに、とっても嬉しかったことを思い出します。けれどもそれから40年近く経った今、この言葉が、この国ではまだ定着していないことを、残念に思います。

今年は「関東大震災」から100年という年で、あちこちで多くの集會が持たれました。NCCも9月3日に在日大韓基督教会東京教会で、「関東大震災 朝鮮人・中国人虐殺犠牲者100年キリスト者追悼礼拝」が開催されました。韓国からのゲストを招き、充実した内容のものでした。このような会もどこか男性主導で、わたしは少し距離を置いていました。そして女性の視点でとらえる集會はないのかとと思っていたところ、たまたまピアニストの崔善愛（チェソンエ）さんからメールをもらいました。

それは「第47回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を覚える9・1集會」の案内でした。これは崔善愛さんの父、崔昌華（チェジョンファ）さんが始められたと聞いています。来年は100年目だから、と、昨年の秋から慌てて準備した3日の追悼礼拝と、47年間地道に活動を続けている人たち。その温度差を感じながら、2つの集會に参加しました。1日のテーマは「それぞれの100年—家族史のなかの恐怖の記憶—語り継がれた祖父母の体験—」。在日コリアンの女性たちのリレートークでした。作家の深沢潮さん、作家の朴慶南（パクキョンナム）さん、社会学者の鄭瑛恵（チョンヨンヘ）さん、司会は崔善愛さんでした。

9月1日号の『週刊 金曜日』の表紙には深沢潮さんの写真が大きく載り、「女性のまなざしから歴史を語り直したい」というインタビュー記事が載っています。わたしは深沢潮さんの作品が好きで、よく読んでいます。視点が低く、社会の片隅で息をひそめるように生きている女性や、格差社会で苦しむ女性の心を描くのがとても上手です。

ご存知だと思いますが、最近『李(スモモ)の花は散っても』という本を書かれました。これは大韓帝国最後の皇太子、李垠（イウン）と政略結婚をさせられた梨本宮方子（マサコ）と、3.1独立運動に関わった架空の女性マサの二人の関係を軸に、関東大震災を背景にして描かれた作品です。実は私は本を買ったものの、時間が無くてまだ拾い読みなのです。ペンネームは日本名ですが、この集會で初めて本名を伺いました。李東愛（イトンエ）というそうです。

深沢さんのおじいさんは、関東大震災のときに、自警団から殺されかけたそうです。ですからこのことをなかつたことにはしないで欲しいと言っています。そして朝鮮人だと気が付かれないように、トウガラシやニンニクを使った料理は食べずに、いつもマグロのお刺身を日本酒の熱かんで晩酌をしていたそうです。お酒がすすむと、鉄の箸でやかんを叩きながら、近所に聞こえないような小さな声で、アリランを歌っていたそうです。100年前に殺された人たちと殺した人たちが一緒に暮らしていることを想像すると、怖くなることがあると、9月1日付東京新聞の取材に答えています。

深沢さんの作品に、『翡翠色の海へうたう』という沖縄の日本軍「慰安婦」を描いた作品があります。この作品には「アリランの歌」が何度も出てくるのですが、ハングルで書かれていて、初めは判りませんでした。読み進めていって、「アリランの歌」だと気が付きました。作品全体を通奏低音のように流れるこの「アリランの歌」は、故郷を離れて暮らす在日コリアンの方の望郷の思いと恨が重なり合う歌だということを教えられました。

朴慶南さんは高校生まで日本名だったそうです。そのころに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事件を知り、「いつか自分も殺される!」と怯えていたそうです。

最後に崔善愛さんは、「いま子どもたちはしんどい思いで暮らしている。そんなしんどい思いでいる子どもたちに、安心して出ておいで、と声をかけられるような社会を作っていきたい」と希望を語りました。

このような在日コリアン女性たちの関東大震災をめぐっての〈ファミリーヒストリー〉を聴く機会は多くはないと思いました。ここにも語り継がれる〈Her Story〉があります。

今日から始まる連帯会議は、「主に接ぎ木された者として—周縁化された場で手をつなぐ私たち—」のテーマのもとで、3日間を共に過ごします。

この基調講演のテーマを「わたしたちの物語—Her Story—を語り継ごう」としました。このようにわたしの知っている“Her Story”を述べてきて、わたし自身が、在日コリアンの方や在日外国人のことを、本当に知らなすぎると思いました。納税の義務はあるのに、選挙権はない。この不当な理不尽さに、本気で闘ってきただろうかと、反省しています。

わたしたちの目の前にある壁をどのように乗り越えるか、または取り壊していくか、一つひとつのことを、〈わたしの言葉〉で語り継いでいきたいと願っています。

— 終 —

주제강연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자로서 '우리들의 이야기-Her Story-를 이어나가자'

기타무라 케이코 NCCJ 여성위원회 위원장

<들어가는 말>

1996년에 시작한 “일·재일·한 NCC 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가 11 회째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과 한국에서 번갈아 개최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전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KCCJ 전국여성회) 사무실이 있는 오사카 이쿠노쿠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대교류회의는 <한일>이 아니라 <일·재일·한> 즉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교포 기독교인(그리스도인) 여성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한>이라고 할 때 우리들 재일 코리안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낸 사람은 과거 KCCJ 전국여성회 총무였던 고 서정순 씨였습니다. NCC가 기획하는 것 중에도 <일한>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당연히 재일교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재일·한>이라고는 하지 않고 <일한>이라는 정치적 용어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일교포>를 빼지 말아달라는 고 서정순 씨와 같은 목소리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도 남성 중심의 한계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한사람 한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의 공통점은 여성이라는 것, 기독교인(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같은 일본에서 살고 있고 한자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은 일본어로 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이름을 바르게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자는 읽을 수 있지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른다면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없지 않을까. 이번에는 돌아갈 때까지 개개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문제를 현장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오랫동안 관여해 온 나가사키 유미코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 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 모국의 문화를 소중히 하면서도 이 나라에 태어나길 잘했다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교회여성회의' 에 대해 >

여러분 중에 '교회여성회의'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여러 번 참가한 적이 있는 그리운 집회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여성회의'가 없었다면 현재의 저는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여성회의'는 '내 반생이 여기 있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조금 역사적 흐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교회 여성 회의'는 1988년 초교파 여성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80년대에 '여성과 신학의 모임'이라는 주로 여성 목사와 신학생이 중심이 되어 월례회를 가졌던 것 같은데, 좀 더 신도들에게도 권유하여 남성 중심의 기독교를 자극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성경 연구를 담당하시는 신영자 씨도 첫 번째 실행위원 중 한명입니다. 왜 제가 이 실행위원이 되었는가 하면 당시 제가 소속된 신센교회가 무목이어서 가끔 요코타 사치코 씨라는 오이즈미교회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예배 설교와 '부인회'의 지도를 하러 와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관계로 권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약 1년의 준비 후, 1988년 9월 22일~24일, 사이타마현 무사시란잔의 국립부인교육회관(당시)에서, 제 1회 「교회 여성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교회는 살아난다, 여성에 의해-나는 교회의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참가자는 어린이를 포함해 70명이었습니다. 이후 2003년까지 이어졌으나 그 후 '성과 인권 기독교전국연락회의'라는 새로운 운동체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저는 아직 문제의식이 낮아 참가자 명단을 보고 목사인지 신도인지 알 수 있도록 목사님께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카터 아이코 씨가 "그런 건 상관없어! 모두가 여자!"라고 한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의 저를 아는 사람에게는 우스갯소리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35년 전의 저는 아직 페미니스트라는 말도 남의 일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프로필에도 썼지만, 저는 <히라바>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여자!”라는 한 마디에 눈뜨게 되어 상대가 목사든 대학의 교수든 가령 <전업주부>라고 해도 직함보다도 서로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성을 쌓아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1 회 '교회여성회의'에서는 신영자 씨가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모임의 주제는 교회가 살아난다 -여성에 의해- 나는 교회의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교회는 살아있지 않다-나는 교회의 대부분을 바꾸고 싶다'라고도 울림을 줍니다. 이곳에 모인 여성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침체시키는 것도 우리 여성에게 달려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여성 교직 연수회에서 느낀 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해석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현재는 (35년 전!) 지구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과 싸울 때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를 맺지 않으면 안될 때 기독교 용어나 사고방식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또 여성 목사들이 남성 지도자들 이상으로 도그마(교리)의 틀에서 한 발짝도 해방되고 있지 않는다면 <크리스천 여성>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중략)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독교는 모두 옳다>는 고정관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 2000년 전 일부 엘리트 종교인들에 의해 편리하게 쓰여진 성경을 무조건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체제가 정한 교리를 평생 소중히 여겨온 것은 아닌지요? (중략) 교회의 역사나 체제를 논하는 것은 자신이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실존을 건 물음입니다.】

이상은 신영자 씨의 개회예배 메시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성경 읽는 법도 재일코리안 기독교 여성의 입장에서 깊고 예리하게 읽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끌려온 여자의 이야기'(요한 8.1-11)에서는 예수를 위해 '도구'가 된 것을 언급하지 않고 한 발 뛰어 넘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미안했다"며 예수의 사과의 말을 원했다고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한마디만으로는 현상태를 하나도 바꿀 수 없고,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어 버립니다. 여기에 성경의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신영자 씨는 말합니다.

이처럼 신영자 씨의 성경 해석은 재일교포이자 기독교인(그리스도인) 여성의 시각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에 새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88년 '교회여성회의'에서 만난 또 다른 재일교포 여성은 고 서정순 씨입니다. '찬송과 만남의 때'라는 프로그램에서 전국의 참가자들이 짧게 출신지를 소개했습니다. <오사카로부터>의 부분은 고 서정순씨가 읽었습니다.

「이카이노(이카이노 내 사랑)」지도가 없는 거리

이카이노-가마가사키가 차별로 인식되자 아이린지구로 기만적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이카이노도 이쿠노가 되었다. 고작 오래된 번지의 문패에 남아있을 뿐- 재일 한의 거리 이카이노
 지금 가장 에스닉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장 인터내셔널한 거리라고 하기도 하고...
 이카이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려는 '재일'들이 살고 있는 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2 세 3 세들이 마당에 둘러 앉아 잔치를 벌이는 거리
 고난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온 제사를 오늘도 어딘가에서 지내고 있는 거리
 옛날 백제천이라 불리며 땀과 눈물이 가득한 히라노천이 삼팔선을 넘어 흐르는 거리.
 이카이노는 슬프지만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일지도 모른다.

고 서정순 씨가 이 '교회여성회의'에 참석하신 것은 당시 KCCJ 전국여성회 총무를 맡고 있었기에 NCC 여성위원회에도 회장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때 고 서정순 씨는 오사카에서 <더 이카이노 밴드>라는 청년들을 불러 기타 반주로 두 곡을 불러주셨습니다. '아시아의 눈물'과 '이 손가락 에 모여라'입니다. (자료참조)

'아시아의 눈물'은 일본에 돈을 벌러 온 여성의 노래입니다.
 '이 손가락에 모여라'는 지문 날인에 대한 프로테스트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지문이 싫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옥설에 대해
 "태어날 때부터 모두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 지문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보물 히데요시의 귀무덤이 손가락
 무덤으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손가락 모양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다츠미 사람은 모두 이 손가락에 모여라."

1988 년 당시에는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지문날인제도가 있었지만 1999 년에 폐지된 것은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단 한 손가락에 대해서도 (실제로 10 개이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서정순 씨는 1991 년 '교회여성회의'에서 성경 발제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 장의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재일교포 기독교인(그리스도인) 여성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민족차별 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차별을 당해도 저승에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발상은 이 세상의 차별을 조장하고 온존해 온 것이 아닌가. 차별을 받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참아라. 이런 식으로 입을 다물게 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선에서 일본으로 억지로 끌려와서 이런 데서 일하고 종군위안부가 되어 죽고 피폭되고 아무 보장 없이 방치되어도 그래도 가만히 있어라. 일본 사회에 대해 고발하지 못하는 억지력의 기독교로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차별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차별을 하지 않는가. 기독교는 차별을 하지 않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고 서정순 씨는 성경을 읽을 때 주해서적인 유대인 종교에서 기독교는 보편적인 세계종교가 된 계기가 복음서 이야기인데 그것을 현실 상황으로 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이 '교회여성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이 모일까? 그것은 자유롭게 자신의 눈으로 혹은 여성이 여성의 시각에서 성경을 읽고 싶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교직이 성경 읽는 법을 규정하고 억제하고 지배해 나가고 교리도 그렇게 만들어져 왔고 교회사도 <남성의 시점>(History = His Story)로 만들어져 왔다. 그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 아닌가. 고 서정순 씨의 이 '교회여성회의'에 대한 생각과 성경 읽는 법의 힌트는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신영자 씨, 고 서정순 씨 외에도 오수혜 씨, 최춘자 씨 등도 '교회여성회의'에 참석해 발제와 성경연구를 담당했습니다. 각자 개인사(Her Story)를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35 년이나 지났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당시 신영자 씨나 고 서정순 씨의 말이 35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처음으로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분명 그 때의 저는 아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싫으면 나가!"라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헤이트 크라임도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떠맡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6 월에 『일본의 기독교 페미니스트 운동사-1970 년 ~ 2022 년까지-』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도미사카 기독교센터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회의 3 년 반에 걸친 공동 연구의 노력입니다. 집필자는 야마시타 아키코, 야마구치 사토코, 오시마 가오리, 호리에 유리, 미즈시마 쇼코, 구도 마리에, 후지와라 사와코. 공들여 조사하고 논의하고 연표, 강연록 등 매우 내용이 풍부한 자료입니다만 저는 이 '교회여성회의'의 관련해서 더욱 친숙한 한 권의 책으로 가슴 설레면서 읽었습니다. 특히 책표지 커버에 적혀 있는 말 "기독교의 견고한 가부장제와 이성애주의 속에서 여자들은 무엇을 묻고 무엇과 싸우고 무엇을 목표로 해 왔는가. 남성 중심적 신학과 교회 조직에 대한 실망과 분노, 거기서 생긴 갈등과 시행착오, 배움과 연구의 축적..... 50 여 년에 걸친 변혁과 저항의 역사가 지금 부각된다..."

좀 전의 '교회여성회의' 이외에도 일본 기독교 여성들의 활동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각각의 경험-3, 구체적인 목소리 듣기'라는 항목에서 신영자 씨는 '재일로서, 카운슬러로서' 개인사(Her Story)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 장에서는 '재일 기독교 여성과 페미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오수혜 씨가 '재일', '여성', '기독교인(그리스도인)'을 키워드로 재일대한기독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재일코리안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과제가 주어졌음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자인 오시마 가오리씨가 말하는 것처럼 7 명의 출신과 교파의 편중 때문에 간과해 버린 것이나 문헌에 의지했기 때문에 빠트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 저로서는 1988 년의 '교회여성회의'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내 인생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의 젠더 갭 지수는 146 개국 중 125 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인권 후진국'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천황제는 물론이고 남성 중심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을 개인으로 존중하는 개인주의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회 구조는 성폭력과 성착취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소리를 질러도 그 목소리는 짓눌리게 됩니다.

자신은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용기 있게 처음 이름을 낸 김학순 씨. 그리고 그 목소리에 이은 송신도 씨, 김복동 씨. 영화 '김복동'에서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 앞 항의집회 광경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죄하라!"고 여럿이 외치는 가운데 김복동 씨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때 김복동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성 피해자가 여성 인권 평화 운동가로 변신한 순간이었습니다.

김복동 씨의 존재는 자신이 입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프리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 씨나 설 자리를 잃고 신주쿠의 거리를 방황하는 소녀들의 쉼터 만들기를 하고 있는 Colabo 대표 진도 유메노 씨의 활동을 지지하고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복동 씨는 일본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전 재산을 내던져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복동 씨는 공부를 좋아해 교사가 되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군의 '위안부'가 되면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이 장학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되었을 무렵의 이 말을 좋아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기뻐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 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말이 이 나라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관동대지진'으로부터 100 년이 되는 해로 곳곳에서 많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NCC 도 9 월 3 일 재일대한기독교회 도쿄교회에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중국인 학살 희생자 100 년 기독교인(그리스도인) 추모 예배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게스트를 초대하여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모임도 어딘가 남성 주도적으로 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집회는 없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 우연히 피아니스트 최선애 씨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47 회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을 기억하는 9.1 집회' 안내였습니다. 이 집회는 최선애 씨의 아버지 최창화 씨가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100 년째라며 지난해 가을부터 황급히 준비한 3 일 추모예배와 47 년째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 그 온도차를 느끼면서 2 개의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첫 날 주제는 '각각의 100 년-가족사 속 공포의 기억-전해 내려온 조부모의 체험-'. 재일코리안 여성들의 릴레이 토크였습니다. 작가 후카자와 시오 씨, 작가 박경남 씨, 사회학자 정영혜 씨, 사회는 최선애 씨였습니다.

9월 1일호 '주간 금요일' 표지에는 후카자와 시오 씨의 사진이 크게 실려 '여성의 눈으로 역사를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후카자와 시오 씨의 작품을 좋아해서 자주 읽고 있습니다. 시선이 낮아 사회 한구석에서 숨죽이듯 사는 여성이나 격차사회에서 고통받는 여성의 마음을 그리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李花 (자두꽃)는 저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이은과 정략결혼을 하게 된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와 3.1 운동에 참여한 가공의 여성 마사 두 사람의 관계를 축으로 관동대지진을 배경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사실 저는 책을 샀는데 시간이 없어서 훑어 보기만 했습니다. 필명은 일본 이름입니다만 이 집회에서 처음으로 본명을 여쭙 보았습니다. 이동애라고 합니다.

후카자와 씨의 할아버지는 관동대지진 때 자경단으로부터 살해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없던 일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인인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추나 마늘을 사용한 요리는 먹지 않고 항상 참치회를 뜨거운 니혼슈로 반주해서 마셨다고 합니다. 취기가 오르면 쇠젓가락으로 주전자를 두드리며 동네에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아리랑을 불렀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살해당한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 무서워질 때가 있다고 9월 1일자 도쿄신문 취재에 대답했습니다.

후카자와 씨의 작품으로 '비취색 바다에 노래하다'라는 오키나와의 일본군 '위안부'를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아리랑 노래'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한글로 쓰여 있어서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읽어가면서 '아리랑 노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작품 전체를 통주저음처럼 흐르는 이 '아리랑 노래'는 고향을 떠나 사는 재일교포 분들의 망향의 마음과 한이 겹치는 노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경남 씨는 고등학생 때까지 일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에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알고 '언젠가 나도 죽임을 당한다!'고 겁먹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애 씨는 "지금 아이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런 힘든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나오라는 말을 건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희망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재일교포 여성들의 관동대지진을 둘러싼 <패밀리 히스토리>를 들을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도 구전되는 <Her Story>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대회의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자로서 -소외된 곳에 사는 우리들-'이라는 주제 아래 사흘을 함께 보냅니다.

이 주제 강연의 테마를 「우리들의 이야기-Her Story-를 이어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Her Story를 말하면서 저 자신이 재일교포 분이나 재일외국인에 대해 정말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있는데 선거권은 없다. 이 부당한 불합리함에 진심으로 싸워왔을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혹은 허물어 나갈 것인가, 하나하나를 <나의 말>로 계속 이야기해 나가고 싶습니다.

- 끝 -

패널원고

함께하는 한·재일·일 기독교여성들에 대하여

안미정 목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서론>

오늘 일본 측으로부터 주제강연 원고를 받고 설명을 들으면서 연대교류회의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상기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재일여성들의 삶의 자취를 살피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일·재일교회가 공동의 주제를 발굴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한 마음을 나눕니다.

처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해서 낯설지만, 오랫동안 한일교회간의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 패널을 맡긴 것 같습니다. 각 회의나 모임의 특수성을 살피기 위해 이 회의의 역사적 자취를 살펴보는 것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처음 참가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고 먼저 간략히 나누려 합니다.

<본론>

1. 한일간의 양국교회협의회, 그리고 이후 부문별 협의회의 시작

한국과 일본의 NCC는 1973년 1차 양국교회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공동의 노력입니다. 한국의 민주화, 남북통일, 일본군'위안부', 신(新)일미가이드라인(1997년), 재일한국, 조선인의 인권, 미사일 방어체계, 미국기지와 군사주의, 역사 교과서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평화헌법 9조, 한일강제병합 100년, 천황제, 일본의 아시아 경제침략과 군사화 등 공통의 과제를 선정하고 공동행동을 벌이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78년에는 한국에 성매매, 매춘을 목적으로 여행을 오는 일본인 관광객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는데, 한국교회여성이 문제를 호소하자 일본 교회여성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4차 양국교회협의회(1978년)는, '개별 주제별 연구협의회로 자주 모이고 필요시 전체협의회를 개최한다.'로 합의함으로써 부문별 활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8년에 도시농촌선교협의회(URM 협의회), 1979년에 한일교회청년협의회(EYC), 1987년에 한일교회학교교사협의회(이후, 한·일·재일그리스도교교육협의회로 명칭변경), 1988년에 동북아시아 기독교문학회의와 한일그리스도교 출판연구세미나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일 NCC 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는 다른 부문별 모임이 시작된 지 20여년 만인 1996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2. 드디어 시작!

제 1-4차 한·일 NCC 여성위원회 교류연대회의(현, 연대교류회의/ 이하, 회의)

제 1 회 회의는 1996 년 6 월, 일본 아카야마현에서 '광복(전후)50 년을 디디며-화해, 협력을 위한 교회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해방 후 50 년을 돌아보고, 일본군'위안부', 아시아 국민기금, 한국인 원폭피해자, 조선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민족차별 행위, 재일동포 2 세 정향균씨의 도쿄도 관리직 시험자격 박탈, 우토로마을 한국인 주거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제 2 차 회의는 1997 년 6 월 10-13 일, 한국 경주에서 '누가 바윗돌을 옮길 것인가-동북아 화해를 위한 한일 기독교여성의 사명'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선포한 '기독교여성 10 년'(1988-1998) 운동의 경과를 살피며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일여성의 역할과 사명을 확인하고 교회 내에서 여성배제와 차별의 경험담과 도전을 나누며 연대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 3 차 회의는 1999 년 10 월 4-7 일, 일본 아시노코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한일여성의 역할-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新(일미)가이드라인의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 WCC 하라레 총회(1998 년)가 가난한 나라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선포했던 '희년 2000 년 운동', 2000 년에 열린 여성국제전범 모의법정(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재판), 북의 인도적 지원, 재일 한국/조선(코리안)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근절, 동아시아 비핵지대화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도 나누었습니다. 당시 교류를 주목적으로 했던 교류연대회의에서, 양국의 파트너십, 공동행동에 무게를 두고 '연대'를 강조해 연대교류회의로 성격을 재규정하였습니다.

이후, 4 차 연대교류회의는 2001 년 10 월 31-11 월 3 일, 한국 문막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한일여성의 역할-새 역사를 창조하자'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 테러리즘과 보복전쟁, 일본의 자위대법 개악과 군사대국화로 전향,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 등을 다루는 등 WCC 의 '폭력극복 10 년:화해와 평화를 일구어가는 교회'(2001-2010 년) 운동의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이때까지 재일대한기독교교회(KCCJ) 전국교회여성연합회는 NCCJ 여성위원회의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연대교류회의는 재일코리안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회의의 주체를 '한·일'에서 '한·재일·일'로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연대교류회의의 기틀이 완성되었습니다.

3. 든든한 한·재일·일 NCC 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 (5 차~현재)

제 5 차 회의는 2003 년 11 월 27-29 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 땅에서부터 생명의 소리를 전하자(이사야 2:4,미가 4:3)'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미국 9.11 테러 이후 활동과 관련한 각국의 보고, 성서연구, 오키나와 전에 동원된 한국 청년,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현장 방문, 미군기지 건설반대 투쟁을 해온 헤노코 지역의 평화활동가와의 만남과 현장 방문, 평화기도회 등을 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 6 차 회의는 2005 년 11 월 1-4 일, 한국 천안에서 '바른 역사 이해를 통한 평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주제강연, 지난 2 년간의 활동 보고, 「미래를 여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토론과 그룹토의, 디아코니아 영성 기도회, 독립기념관 현장탐방,

실천방안(Action Plan) 채택, 폐회예배 등을 했습니다. 특별히 2005년이 한국의 해방 60주년, 분단 60주년이어서 과거사 문제,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 독도영토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사회적 이슈들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제 7차 회의는 2007년 11월 26-29일, 일본 야마나카코 살레시안 시스터즈, 피정의 집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기독교 관점에서 본 일본군'위안부'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지난 2년간의 활동 보고와 일상 속 여성에 대한 폭력,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강연,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성찰, 전쟁으로 인한 여성 인권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성서연구, 전시 성폭력의 피해와 가해 자료를 모은 일본 최초의 자료관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방문하고, 공동실천과제(Action Plan) 채택 등을 하였습니다.

제 8차 회의는 2010년 11월 2-5일, 한국 서울에서 '화해를 넘어 평화의 연대로-기독교여성 관점에서 본 한일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강제연행 문제, 일본역사왜곡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 재일동포의 인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공동행동 방안 모색, WCC의 폭력극복 10년 운동(2001-2011)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에큐운동의 방향을 제안하는 기회였습니다.

제 9차 회의는 2013년 6월 5-7일, 일본 센다이에서 '생명의 하나님이지여,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WCC 제 10차 총회의 주제로 열렸습니다. 센다이와 후쿠시마지역의 피해실태와 복구를 위한 교회의 역할,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등을 함께 나누고, 2013년 WCC 10차 부산총회의 의의와 총회 소개 등을 하며 기대를 나누었습니다.

제 10차 회의는 2017년 11월 28-30일, 한국 서울에서 '화해의 여정, 우리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에큐메니칼 연대와 여성의 평화지향을 담은 예배와 성찬을 시작으로, 주제강연과 현장보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1311차) 참여와 발언,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탐방, 집담회, 성서연구, 평화워크숍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쟁으로 향해가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 한·일간의 역사 문제,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hate speech,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주의와 우경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이하, 2015 한일합의)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며 다짐과 실천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결론>

저는 그동안의 회의자료를 살피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96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수정교과서 문제, 헌법 9조 개악 반대운동, 재일한국/조선인 인권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 운동, 미군기지와 군사주의 반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과제를 살피며 연대해왔지만, 궁극적인 해결은커녕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덧붙여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군사적 대립과 불안한 안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폭력사태, 전시 성폭력 문제와 식량 문제, 거센 차별과 혐오의 문제 등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재일한국/조선인들의 삶, 이들이 당면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함께 저항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측의 여성위원회가 직접 주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용기와 열정에 깊이 박수를 보내며, '주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가 함께 저항하고 이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지혜와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0 번의 회의가 이루어지며 채택했던 실천방안이나 다짐들을 재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교류회의 이후에도 한. 재일. 일 NCC 여성위원들이 지속적인 행동과 교류를 이어가야 하며, 그래야 비로서 더 깊게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전쟁을 경험했던 한. 재일. 일 여성들의 이야기를 (증언이나 기록) 나누며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케이코씨의 제안대로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고, 개인의 역사와 삶을 이해하는 것부터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각국의 여성들이 자신의 역사와 경험 안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재일한국/조선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혐오, 조선(우리)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폭력 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거나 경과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서명에 참여한다거나 관련된 영화나 미디어가 있을 때 공유한다거나!)

셋째로는, 각국에서 채택한 공동행동을 잘 실천하고 경과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회의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끝 -

ディスカッション

連帯する 韓国・在日・日本 キリスト教女性たちについて

あんみじょん
安美 晶 牧師 (韓国教会女性連合会総務)

<序論>

本日、日本側から主題講演の原稿を受け取り、説明を聞きながら、連帯交流会議の特殊性と重要性を再認識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特に、在日女性たちの人生の軌跡を見つめ、連帯することができる機会だと考えると、とても楽しみです。長い間、韓国・日本・在日の教会が共同のテーマを発掘し、連帯できるように準備された全ての方にまず感謝の気持ちを伝えます。

連帯交流会議には初めての参加なので慣れないのですが、長い間、韓日教会間の交流をしてきたので、私にパネラーが任されたようです。各会議や集まりの特殊性を見るために、

この会議の歴史的な経緯をまず見たいと思います。私のように初めて参加された方もいると思いますので、まず簡単に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

<本論>

1. 韓日間の両国教会協議会、それ以降の部門別協議会の開始

韓国と日本のNCCは、1973年に第1次両国教会協議会を皮切りに現在まで続いています。両国間の不幸な歴史を清算し、和解と平和の時代を拓くための共同の作業です。韓国の民主化、南北統一、日本軍「慰安婦」問題、新日米ガイドライン（1997年）、在日韓国・朝鮮人の人権、ミサイル防御体系、アメリカ基地と軍事主義、歴史教科書および正しい歴史認識、平和憲法9条、韓日強制併合100年、天皇制、日本のアジア経済侵略と軍事化など共通の課題を選定し、共に行動して連帯してきました。特に1978年には韓国に性売買、売春を目的に旅行で来る日本人観光が社会的に大きな問題となりましたが、韓国の教会女性が問題を訴えると、日本の教会女性が積極的に応えたこともありました。

第4回両国教会協議会（1978年）は、「個別、主題別の研究協議会を頻繁に行い、必要に応じて全体協議会を開催する」と合意することで、部門別の活動のきっかけとなりました。1978年に都市農村宣教協議会（URM協議会）、1979年に韓日教会青年協議会（EYC）、1987年に韓日教会学校教師協議会（以後、韓・日・在日キリスト教教育協議会に名称変更）、1988年に北東アジアキリスト教文学会議と韓日キリスト教出版研究セミナーなどが始まりました。韓日NCC女性委員会の連帯交流会議は、他の部門別の集まりが始まってから20年余りの1996年、日本で初めて開かれました。

2. ついにスタート！

第1-4回日韓NCC女性委員会交流連帯会議（現・連帯交流会議／以下、会議）

第1回会議は1996年6月、日本の岡山県で「光復（戦後）50年を歩む-和解、協力のための教会女性の役割」を主題に開催されました。解放後50年を振り返り、日本軍「慰安婦」、アジア国民基金、韓国人原爆被害者、朝鮮学校の女子生徒に対する民族差別行為、在日同胞2世ジョンハンギョンさんの東京都管理職試験資格剥奪、ウトロ村の韓国人住宅問題などを取り上げました。

第2回会議は1997年6月10-13日、韓国の慶州で「誰が石を動かすのか-東北アジアの和解のための日韓キリスト教女性の使命」という主題で開催されました。これは世界教会協議会(WCC)が宣言した「教会女性10年」(1988-1998)運動の経過を振り返り、世界エキュメニカル運動の流れの中で日韓女性の役割と使命を確認し、教会内での女性排除と差別の経験談と挑戦を分かち合い、連帯の意志を固めました。

第3回会議は1999年10月4-7日、日本の芦ノ湖で「東アジアの平和と日韓女性の役割-イエス・キリストと一致して」というテーマで開催されました。新(日米)ガイドラインの東アジア平和への脅威、WCCハラレ総会(1998年)が貧しい国の借金を免除するために宣言した「ヨベルの年2000年運動」、2000年に開かれた女性国際戦犯模擬法廷(日本軍の性奴隷制関連裁判)、北朝鮮への人道的支援、在日韓国・朝鮮(コリアン)女性と子どもに対する暴力根絶、東アジア非核地帯化など、さまざまなテーマで討論を行いました。当時、

交流を主とした交流連帯会議から、両国の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の行動に重きを置き、「連帯」を強調した連帯交流会議として性格を再定義しました。

その後、第4回連帯交流会議は2001年10月31日～11月3日、韓国の文幕で「東アジアの平和と日韓女性の役割-新しい歴史を創造しよう」という主題で開催されました。米国のミサイル防衛体制、テロリズムと報復戦争、日本の自衛隊法改悪と軍事大国化、日本の歴史歪曲教科書問題などを取り上げ、WCCの「暴力克服10年：和解と平和を築く教会」(2001-2010年)運動を共に始めました。この時まで、在日大韓基督教会(KCCJ)全国教会女性連合会はNCCJ女性委員会の一員として参加していました。彼女らの積極的な参加と活動によって続けることができた連帯交流会議は、在日コリアン問題を私たちの問題として認識するようになり、会議の主体を「韓日」から「韓国・在日・日本」と拡大しました。これにより、現在の連帯交流会議の枠組みが完成しました。

3.頼もしい韓国・在日・日本 NCC 女性委員会連帯交流会議(第5回～現在)

第5回会議は2003年11月27-29日、日本の沖縄で「沖縄の地から命の声を伝えよう(イザヤ2:4、ミカ4:3)」という主題で開催されました。米国9.11テロ後、活動に関連した各国の報告、聖書研究、沖縄戦に動員された韓国の青年、民間人犠牲者を追悼する現場訪問、米軍基地建設反対の闘争をしてきた辺野古地域の平和活動家との出会いや現場訪問、平和の祈禱会などを行い、その意味を深めました。

第6回会議は2005年11月1-4日、韓国の天安で「正しい歴史理解を通じた平和づくり」を主題で開催されました。主題講演、過去2年間の活動報告、「未来を拓く歴史」教科書に対する討論とグループ討論、ディアコニアの霊性祈禱会、独立記念館の現場視察、アクションプランの採択、閉会礼拝などを行いました。特に2005年は韓国の解放60周年、分断60周年であり、過去史問題、日本の歴史歪曲教科書問題、独島領土問題、日本軍「慰安婦」問題など社会的 이슈が多かった時期でした。

第7回会議は、2007年11月26-29日、日本の山中湖サレジオ姉妹修養所で「女性に対する暴力根絶-キリスト教の視点から見た日本軍「慰安婦」というテーマで開催されました。過去2年間の活動報告と日常の中の女性に対する暴力、性差別と性暴力問題を中心としたテーマ講演、日本軍「慰安婦」問題への反省、戦争による女性人権の被害と苦痛についての聖書研究、戦時中の性的暴力の被害と加害資料を集めた日本初の資料館である「女性の戦争と平和資料館」を訪問し、アクションプランを採択しました。

第8回会議は2010年11月2-5日、韓国ソウルで「和解を越えて平和の連帯へ-キリスト教女性の視点から見た韓日強制併合100年」という主題で開催されました。いまだ解決されていない日本軍「慰安婦」問題、強制連行問題、日本史歪曲問題、靖国神社問題、在日同胞の人権問題などの解決のために共に行動する方策を模索し、WCCの暴力克服10年運動(2001-2011)を締めくくり、新たなエキュメニカル運動の方向性を提案する機会となりました。

第9回会議は2013年6月5-7日、日本の仙台で「命の神よ、正義と平和に導いてください」というWCC第10回総会のテーマで開催されました。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仙台と福島の実態を知り、復興のための教会の役割、最近の日本の軍国主義の復活に対

する懸念、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の役割などを共に分かち合い、2013年 WCC 第10回釜山総会の意義と総会紹介などを行い、期待を分かち合いました。

第10回会議は2017年11月28-30日、韓国ソウルで「和解の旅、私たちはどこにいるのか」という主題で開催されました。エキキュメニカルな連帯と女性の平和を求める礼拝と聖餐をはじめ、主題講演と現場報告、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定期水曜デモ（1311回）への参加と発言、戦争と女性人権博物館の見学、座談会、聖書研究、平和ワークショップなどを行いました。戦争に向かっている朝鮮半島をめぐる政治状況、韓日間の歴史問題、在日韓国・朝鮮人に対するヘイトスピーチ、日本の安倍政権の軍事主義と右傾化、東北アジアの軍事的緊張と12.28韓日日本軍「慰安婦」合意(以下、2015日韓合意)など未解決の問題を確認し、決意と実践方法を模索しました。

<結論>

私はこれまでの会議資料を見ながら、私たちの前に置かれた問題が依然として残っていることを実感しました。1996年から日本軍「慰安婦」問題、日本の歴史修正教科書問題、憲法9条改悪反対運動、在日韓国・朝鮮人の人権問題、靖国神社参拝反対運動、米軍基地と軍事主義反対、朝鮮半島平和統一と東北アジア平和のための努力など、様々な課題を見ながら連帯してきましたが、最終的な解決はおろか、糸口すら見つけられませんでした。加えて、ますます深刻化する軍事的対立と不安定な安全保障、世界各地で起きている戦争と暴力、戦時中の性暴力問題と食糧問題、激しい差別と憎悪の問題などが私たちの生活を脅かしています。

私たちはこの機会に、在日韓国・朝鮮人の生活、彼らが直面している憎悪と差別の問題に共に抗う機会を得たと思います。在日側の女性委員会が自ら主催し、自分の話を語る勇気と情熱に深く拍手を送り、「主に接ぎ木された」私たちが共に抵抗し、彼らの人権回復のために知恵と心を集められ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私は、10回の会議で採択した実践方法や決意を再挑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そのためには、連帯交流会議後も韓国・在日・日本のNCC女性委員が継続的な行動と交流を続けることで、より深く連帯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そのために、次のようにいくつか提案します。

第一に、戦争を経験した韓国・在日・日本の女性たちの物語（証言や記録）を共有し、交流することです。もちろん、北村恵子さんの提案のように、お互いの名前を確認し、個人の歴史や人生を理解することから始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各国の女性たちが自分の歴史や経験の中で物語を共有できるでしょうか？

第二に、在日韓国・朝鮮人が受けている憎悪、朝鮮学校（ウリハッキョ）に対する不当な差別や暴力などを継続的に公論化し、経過を共有することができればと思います。（例えば、署名に参加、関連する映画やメディアがあれば共有するなど。）

三つ目は、各国で採択した共同の行動をしっかりと実践し、経過を共有できればと思います。オンライン会議も可能だと思います。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終

発題

朝鮮学校との出会いと恵み 交流と共生

長崎由美子

私は大学時代、在日韓国人政治犯 李哲さん救援活動に参加し、在日韓国朝鮮人(以下：在日)の人々が植民地支配の結果、日本で暮らし差別を受けた歴史を知った。そして祖国が分断された中、在日の青年が民族を取り戻すために留学した韓国で、北のスパイだと冤罪の犠牲にされたことに衝撃を受けた。日本が植民地支配の反省もなく今も在日韓国朝鮮人の人々を差別し、朝鮮半島の分担に加担し統一を阻止している事を恥じた。

在日の人々と出会い交流し、ともに生きたいと願い、生野区で44年前に開催したSCM(学生キリスト者運動)現場研修に参加し、在日1世の明るくたくましいハルモニに魅了された。差別を受けながら、人間としての暖かさと優しさを持ち、強くしたたかに生きる彼女達に「姉ちゃんキムチでごはんでも食べていき」と言われ感動した。

生野の地で、在日の人たちと出会い交流して暮らしたいと願い、大阪聖和教会とつながる大阪聖和社会館に26才で就職した。28才で長男を出産し、大阪聖和保育園に就職した。在園児の70%が在日であるキリスト教主義の保育園は、それまで全く在日への民族保育はなく、園児の多くは日本の通名を名乗っていた。

朝鮮半島にルーツを持つ在日の子どもたちに、自国の民族文化が素敵なものだと知り、自分をありのままに認めて欲しいと願い、在日の保育士と日本人保育士が民族保育に取り組んだ。

挨拶の「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クラス名を「愛とサラン」、「風とパラン」と並列で標記し、給食にビビンバ、チャプチェ、チヂミを取り入れた。「サントッキ」などの歌も取り組んだ。民族保育週間を設け、保育士がサムルノリや、扇の舞(プチェチュム)を披露した。子どもたちは目を輝かし在日の保育士が本名で名乗ると「先生も朝鮮人なん？私も朝鮮人やで」と嬉しそうに話しかける。

韓国・朝鮮の文化は素敵なものだと知り、自分のルーツをありのままに認める事が、子どもたちの豊かな人間性を育むと実感した。

そしてそれは、在日のこどもたちだけでなく、ともに育つ日本の子ども人間性を育てることを、私は我が息子から教えられた。

息子は在日の友人が差別により通名を持つことを、名前が二つもあってかっこいい。とあこがれ「リヨンホ」と名乗っていた。彼にとり在日の友人は差別される存在では無く、違う文化を持つ憧れの存在だった。

日本人として差別する負い目から出会うのではなく、互いに違いを認め合い尊敬をする出会いを幼児期からする大切さを深く感じた。

この民族保育の重要さが、私の朝鮮学校支援の原点である。

朝鮮学校を支える会を、21年前に生野区で立ち上げた。チョソンハッキョと出会い、自国の言葉で話し学び歴史を知り、素晴らしい民族芸術を公演することも達の姿を観てきた。差別の中で民族の言葉を取り戻すために1世の人々がどれほど苦勞をしたのかも知った。

朝鮮学校は、ただ生徒たちだけの場所では無く、在日にとり、地域で集い様々な活動でのよりどころとなるコミュニティ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そして、大切な働きとして分断された南北の朝鮮半島のかげはしとして、朝鮮学校は韓国から多くの支援で支えられている。

韓国からの支援は俳優のコンヘヒョさん、金ヨンジュン監督らによる「モンダンヨンピル」「ウリハッキョとこどもたちを守る市民の会」、亡くなった金福童ハルモニらによる支援、教会を通じて南北平和財団、韓国基督教長老会京畿南老会からの絵本寄贈など、多くの支援が寄せられてきた。

金福童ハルモニは朝鮮学校を訪問し、こどもたちにプレゼントをし、朝鮮学校裁判敗訴の日に、韓国から駆けつけ「希望はつかみとるものファイティーン！」と激励され涙した。

朝鮮学校への差別は戦後一貫して日本政府は続けてきたが、それを変えたのは地方自治体による朝鮮学校補助金だった。大阪は日本で最も多くの在日が暮らす自治体として朝鮮学校への補助金を全国に先駆けて支給してきた。

しかし21年前の日朝平壤宣言と同時に発表された拉致事件で、朝鮮に対する激しい抗議と弾圧が始まった。大阪府は11年前に朝鮮学校補助金を全て停止してしまった。国からは高校無償化からも排除された。

2012年3月1日「朝鮮高級学校無償化を求める連絡会・大阪」（朝鮮学園、弁護団、支援者により組織）を結成し、国と大阪府市に対して補助金復活と高校無償化適用を求めて裁判を起し闘った。裁判は大阪地裁にて高校無償化裁判で完全勝訴したが、残念ながら高裁、最高裁で敗訴し司法が差別を追認した結果となった。

大阪府庁前で正午から補助金の復活を求める「火曜日行動」を2012年4月17日からスタートし、もう11年を越えた。毎回30、40人の参加者により、「子どもの夢と希望を大人が奪わない」をスローガンに、朝鮮学校差別撤廃を訴えている。

朝鮮学校を多くの人に知って欲しいとの願いで、朝鮮学校の公開授業も取り組み、出会いと交流を広げている。朝鮮学校の厳しい財政を支援するホンギルトン基金を立ち上げ、この10年で3000万以上の支援を寄せて頂いた。

日本が植民地支配と侵略戦争の反省と清算をせずにきたことが、朝鮮学校への差別と在日コリアンへの差別の原因である。

今年は関東大震災から 100 年を迎える。関東大震災では 7000 人近い朝鮮人がデマにより虐殺された。私の母は当時 5 歳で東京で震災を迎えた。その日の昼に近所の人が母の家に押し寄せ「朝鮮人が井戸に毒を投げ込んだ。子どもを殺しに来る」と叫んだ。

信仰深いクリスチャンだった祖母は、それはデマであり、日頃付き合う朝鮮人がそんな事をするはずがないと説得した。しかし、夜になるとまた人々が来て「外務省の役人がピストルを持ち出し朝鮮人から守る自警団を作った。お役人がするんだから、やはり朝鮮人が襲いにくるんだ」と騒ぎ立てた。

しかし、祖母は最後までそれはデマだと言っていたと母から聞いた。

朝鮮学校でこの話をした時に校長先生が、「祖父の友人が自警団に追われて殺されそうになった時に、かくまえば自分も殺されるかもしれないのに、門を開けて助けてくれた日本人に命を救われた。」と話された。どんなときにも人間の心を失わない人が国境を越えているのだと。

ヘイトスピーチが吹き荒れ、差別と排外が強まる今だからこそ、私はともに歩む一人になりたいと強く思う。

朝鮮学校をとりまく環境は少子化を迎えますますます厳しいが、人間の誇りを育て、ありのままの自分を愛するかけがえのない場として、これからも全力で支援していきたい。

발제

조선학교의 만남과 은혜 교류와 공생

나가사키 유미코

나는 대학 시절 재일한국인 정치범 이철 씨 구원활동에 참가해서 재일한국조선인(이하:자이니치)들이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일본 생활에서 차별받은 역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조국이 분단된 가운데, 자이니치 청년이 민족을 되찾기 위해 유학한 한국에서, 북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희생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도 없고, 지금도 자이니치들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한반도 분담에 가담하고, 통일을 저지하고 있는 것에 부끄러웠다.

자이니치들과 만나 함께 교류하며 살고 싶어서 이쿠노쿠에서 44 년 전에 개최한 SCM (학생 기독교인 운동) 현장 연수에 참가했고 자이니치 1 세인 밝고 강인한 할머니에게 매료되었다. 차별을 받으면서도 인간으로서의 따뜻함과 다정함을 갖고 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녀들이 '언니, 김치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말해주었을 때 감동했다.

이쿠노쿠에서 자이니치들과 만나 교류하며 살고 싶어서, 오사카 세이와 교회와 관련 있는 오사카 세이와 사회관에 26 세 때 취직했다. 28 세에 장남을 출산하고 오사카 세이와 보육원에 취직했다.

보육원 아이들의 70%가 자이니치이고, 기독교주의 보육원이었으나, 그동안 전혀 자이니치를 위한 민족보육은 없었고, 보육원 아이들의 대부분은 일본의 통명을 쓰고 있었다.

한반도에 뿌리를 가진 자이니치 아이들이 자국의 민족문화의 훌륭함을 알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이니치 보육사와 일본인 보육사가 민족 보육에 임했다.

인사로 '안녕하십니까' 클래스 명을 '愛(아이)와 사랑', '風(가제)와 바람'이라고 병렬로 표기해 급식에 비빔밥, 잡채, 부침개를 도입했다. '산토끼' 등의 노래도 넣었다. 민족보육주간을 마련하여 보육사가 사물놀이와 부채춤을 선보였다.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자이니치 보육사가 본명을 자칭하니 '선생님도 조선인이야? 나도 조선인이야'라고 기쁘게 말을 걸어온다.

한국 조선의 문화는 멋지다는 것을 알고 자기 뿌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이들의 풍요로운 인간성을 기른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그것은 자이니치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자라는 일본 아이들의 인간성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우리 아들로부터 배웠다.

아들은 자이니치 친구가 차별로 인해 통명을 갖고 있는 것을 이름이 두 개나 있어 멋지다고 동경하여 '리용호'라고 자칭했다. 아들에게 있어서 자이니치 친구는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가진 동경의 존재였다.

일본인으로서 차별하는 부채감으로부터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만남을 유아기부터 가져야한다는 소중함을 깊이 느꼈다.

이 민족보육의 중요성이 나의 조선학교 지원의 원점이다.

조선학교를 지지하는 모임을 21년 전 이쿠노구에서 시작했다. 조선학교와 만남, 자국의 말로 말하고 배우고 역사를 알고 멋진 민족예술을 공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차별 속에서 민족의 말을 되찾기 위해 1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였는지도 알게 되었다.

조선학교는 단지 학생들만의 장소는 아니고, 자이니치에게 있어서 지역에서 모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지할 곳이 되는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소중한 활동으로 분단된 남북 한반도의 가교로서, 조선학교는 한국의 많은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은 배우 공혜효 씨, 김영준 감독 등에 의한 '몽당연필',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들의 지원, 교회를 통한 남북평화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의 그림책 기증 등 많은 지원이 이어졌다.

김복동 할머니는 조선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고 조선학교 재판 패소날에 한국에서 달려와, '희망은 차지하는 것, 화이팅!' 이라고, 격려해 주셔서 눈물이 났다.

전쟁 후,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조선학교를 차별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달랐다. 한 예가 조선학교 보조금이다. 오사카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자이니치가 사는 지자체로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전국보다 한발 앞서 지급해 왔다.

그러나 21년 전 일조 평양 선언과 동시에 발표된 납치사건으로 조선에 대한 격렬한 항의와 탄압이 시작됐다. 오사카후는 11년 전에 조선학교 보조금을 모두 정지시켰다.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무상화에서도 배제시켰다.

2012년 3월 1일 '조선 고급 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학회·오사카' (조선 학원, 변호단, 지원자에 의한 조직)를 결성하여 나라와 오사카후와·오사카시에게 보조금 부활과 고교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켜 싸웠다. 재판은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고등학교 무상화 재판으로 완전 승소했지만 불행히도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사법이 차별을 추인한 결과가 되었다.

오사카후청 앞에서 매주 화요일 정오부터 보조금 부활을 요구하는 시위인 <카요우비 코우도우(화요일 행동)>은 2012년 4월 17일부터 시작하여 11년이 넘었다. 매회 30, 40명의 참가자가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어른이 빼앗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조선학교 차별철폐를 호소하고 있다.

조선학교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조선학교 공개수업도 도모하여 만남과 교류를 펼치고 있다. 조선학교의 어려운 재정을 지원하는 흥길동 기금을 시작해 지난 10년간 3,000만엔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반성과 청산을 하지 않고 해 온 것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자이니치 차별의 원인이다.

올해는 관동대지진 100년을 맞은 해이다. 관동대지진에서는 7,000명 가까운 조선인이 유언비어로 학살당했다. 내 어머니는 당시 5세 때 도쿄에서 지진을 맞았다. 그날 낮에 이웃 사람이 어머니의 집에 몰려들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던졌데. 아이를 죽이러 온 데'라고 외쳤다.

신앙심 깊은 크리스천이었던 할머니는 그것은 뜯소문이고 평소 사귀는 조선인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람들이 또 찾아와 '외무성 관리가 권총을 꺼내 조선인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자경단을 만들었데. 관리가 할 정도이니 틀림없이 조선인이 습격하러 올거야'고 선동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끝까지 그것은 뜯소문이라 했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다.

조선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할아버지 친구가 자경단에 쫓겨 죽을 뻔했을 때, 감춰주면 자신도 죽을지 모르는데 문을 열어 도와줘 준 일본인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때에도 인간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국경을 초월한다고.

헤이트 스피치가 휘몰아치고 차별과 배제가 드세지는 지금이기에, 나는 함께 걷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깊이 소망한다.

조선학교를 둘러싼 환경은 저출산을 맞이해 더욱더 어렵지만, 인간의 자부심을 키우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곳으로서 이후로도 전력을 다해 지원하려 한다.

<グループワーク 조별 모임>

聖書研究

「イエスと出会う」

しんよんじゃ
申英子牧師

マルコ 16 : 10~13

キリスト者とは、①神とはどのような存在なのか、②イエス・キリストはどのような方なのか、③自分はどんな存在なのかを問う者です。

わたくしたちがキリスト者であるならば、身近に関係のある人たち（家族を含め、日常的に会っている人たち）との間で起きる出来事は無視できません。問題が深刻であればあるほど、イエス・キリストが復活された意味、聖霊の働きを思い、考えを深める必要があるでしょう。

以下の箇所はこのことを示しているテキストです。 マルコ 16 : 10~13

- 10 マリヤは、イエスと一緒にいた人々が泣き悲しんでいる所に行って、それを知らせた。
 11 彼らは、イエスが生きておられる事と、彼女に御自身をあらわされた事とを聞いたが、信じなかった。
 12 この後、そのうちのふたりが、いなかの方へ歩いていると、イエスはちがった姿で御自身をあらわされた。
 13 このふたりも、ほかの人々の所に行って話したが、彼らはその話を信じなかった。

この箇所はたいていの聖書がカッコつきにしています。それゆえ、触らないという聖書学者もいます。

たしかに、ある写本では使われていないというのもあります。しかし、世界に数多くある写本の中で、以下の3つのみが記載していないだけです。

マルコ 16 : 9~20 を含まない三写本①シナイ写本（四世紀）...書いた後で消去した痕跡がある。②バチカン写本（四世紀）...空欄にされている③小文字写本（十二世紀）

たくさんある写本の中で、これら3つのみがこの箇所を認めていないのです。

ですから、書かれている方はるか多く、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と関係のある記事であると認めてよいでしょう。

《神について》

①出エジプト記 3 : 14 モーセが「あなたの名前は？」と神に尋ねたときに「わたしはあつてあるもの」と答えています。

ヘブライ語では「アシェル」これは 3 人称男性単数未完了で現在形の「あ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どこかにとどまる存在ではないのです。

②ユングが東アフリカのエルゴン山中の住民のところに滞在していた時の経験です。住民が日の出の際の太陽を崇拜するのを知り、「太陽は神様なのか」と質問。住民たちは全く馬鹿げた質問としてそれを打ち消します。

「太陽が昇るとき、それが神さまだ」ユングは「私は、人間の魂には始原のときから光への憧憬があり、原初の暗闇から脱出しようという抑え難い衝動があったのだということを知った。・・・朝の太陽の生誕は、圧倒的な意味深い体験として、黒人たちの心を打つ。光の来る瞬間が神である。その瞬間が救いを、解放をもたらす。それは瞬間の原体験であって、太陽が神だと言ってしまうと、その原体験は失われ、忘れられてしまう」

(「昔話の深層」河合隼雄) 35 頁より。

このことは、神は人格神でどこかに固定されてい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ます。むしろダイナミックなエネルギーを示唆しています。

《イエスについて》

本日のテキストには、復活の後に「ちがった姿で」現れています。

関連記事としてマタイ 25 : 40 以下、特に「この最も小さい者の一人にしたのはわたしにしてくれたことなのである」があります。このところで神がちがった姿で現れています。(トルストイの「靴屋のマルチン」参照)

《わたしたちについて》

人間は、自分がどのような存在で自分はどこにいて、何をしているのか自己覚知が出来ていなければ、何もはじまりません。

イエスとファリサイ派の人々の神の国についての問答) また『見よ、ここにある』『あそこにある』などとも言えない。神の国は、実にあなたがたのただ中にあるのだ」(ルカ 17 : 20~21)

ただなかは原語では「エントス」で、「間」「中」よりも、私たちのところの中にあると解釈できます。復活したイエス・キリストに出会っていることを気づかずにいるとしたら、また、イエス・キリストの姿を固定化しているとしたら、イエス・キリストが一番嘆く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今、ここに」が私たちの生きる場であることを自覚してゆく者でありたいです。

《結び》

結局、イエスがちがった姿で復活されたことは、私たちが自分の中にあるイエスのイメージを固定化するのではなく、深い意味でイエスがキリストとして私たちの近くにおられることに気づかされる出来事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성경연구

「예수와 만나다」

신영자 목사

마가복음 16 : 10~13

그리스도인이란 ①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②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③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를 묻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가족을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의미,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며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구절은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 : 10~13

- 10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11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대부분의 성경에서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루지 않는 성경 학자도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사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에 수많은 사본 중 다음의 3 개만이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 : 9~20 을 포함하지 않는 3 사본 ①시내 사본(4 세기)... 쓴 후 지운 흔적이 있다. ②바티칸 사본(4 세기)...공란으로 되어 있다 ③소문자 사본(12 세기)

많은 사본 중에서 이들 3 개만이 이 구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써있는 사본들이 훨씬 많으므로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기사라고 인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① 출애굽기 3 : 14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이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쉐르」 이것은 3 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로 현재형인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딘가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② 용이 동아프리카의 에르곤 산 속 마을에 머물고 있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주민이 일출 때의 태양을 숭배하는 것을 알고, “태양은 신인가” 라고 질문. 주민들은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질문이라 그것을 무시합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그것이 신이다”
응은 “나는 인간의 영혼에는 태초부터 빛에 대한 동경이 있고, 원초의 어둠에서
탈출하려는 누르기 어려운 충동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침 태양의 탄생은
압도적인 의미 깊은 체험으로 흑인들의 마음을 친다. 빛이 오는 순간이 신이다. 그
순간이 구원을, 해방을 가져온다. 그것은 순간의 원 체험이며, 태양이 신이라고 말해
버리면 그 원체험은 사라지고 잊혀져 버린다”(「옛날 이야기의 심층」—가와이 하야오)
35 페이지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인격신으로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역동적인 에너지를 시사합니다.

《예수에 관하여》

오늘의 텍스트에는 부활 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관련 기사로서 마태복음
25 : 40 이하, 특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톨스토이의 「구두장이 마틴」참조)

《우리에 대해》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답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누가 17 : 20~21)

"~안에"에 해당하는 원어 「엔토스」는 '-사이에, -안에'의 의미보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정화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슬퍼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가 우리의 살아있는 곳을 자각해 가는 자이기 원합니다.

《마무리》 결국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고정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게 하신 사건이 아닐까요?

폐회 예배

인도자: 정옥진

(*여러 색의 스카프를 각각 꺾리를 틀어 의자 위에 올려놓는다. 참가자들이 입장할 때, 원하는 색상의 자리에 편안하게 앉는다. 이 스카프는 '몸의 고백' 순서 때 사용한다.)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지금, 이곳에 초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십니다. (요15:5)

회 중: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당신께 접붙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당신의 은총 속에서 머물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롬11:23) 또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하게 하소서.

함 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 4:24)

찬송 사랑이 이긴다

<순서>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폭력도 평화가 이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을 바라보자
 송고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현실도 정의가 이긴다
 늦은 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자
 마음 속에 꺼지지 않는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그래 이제 함께 가보자
 두 손 꼭 잡고 함께 외치자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 아멘

항 주카

♩ = 100

G B C Am D7 G
 사랑이 이긴다 - 사랑이 이긴다 -
 평화가 이긴다 - 평화가 이긴다 -
 정의가 이긴다 - 정의가 이긴다 -

G B C Am7 G/D D7 G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 -
 세상에 아무리 강한 폭력도 평화가 이긴다 -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현실도 정의가 이긴다 -

C Maj7 Am7 Em C Maj7 D7 G
 모든 걸 내려놓고 - 생명을 바라보자 -
 늦은 밤 타오르는 - 불꽃을 바라보자 -

C Maj7 Am Em C Maj7 D7 G
 송고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의 사랑이 이긴다 -
 마음 속에 꺼지지 않는 우리 의 사랑이 이긴다 -

Em D/F# G Am G/B C6
 그래 이제 함께 가 보자 두
 손 꼭 잡고 함께 외치자 - -

D.C. al Fine

여성들의 주기-도문(함께) 최은영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당신의 뜻에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당신의 은총이 깃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욕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
 죄지은 자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알아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힘 있는 자의 넘어짐을 작은 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여성을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 속에서 우리를 속히 구하여 주십시오.
 차별 없는 나라와 주변으로부터의 권세, 평화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 여성들의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

주기도문의 몇 구절은 힘 있는 자의 변명을 합리화하는 목적으로 왜곡되어 해석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내 여성주의연합예배공동체는 2021년 여성주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성의 시선과 경험을 반영하여 재해석한 여성들의 주기-도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기도문’ 혹은 ‘주의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하게 된 까닭은 여성들에게 ‘주기’(empowering)를 바라는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 ‘돌려-주기’,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는 영역에서 여성에게 ‘권한-주기’,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 진보한 여성주의적 역동과 실천을 기대합니다.

성경봉독 및 묵상

시편 43편 여성을 위한 기도 ‘우리가 힘을 내어’ 이희선/ NCCI

- 1 하나님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관스레 폄하하고 질 낮은 족속처럼 우리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고
 교만하고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 2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이 슬프게 다니며
 불의한 자들의 압제로 기가 죽어지냈습니다.
- 3 주의 빛과 진리로 우리가 힘을 내어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도와주십시오.
- 4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러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다하며 거문고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 5 우리의 슬픔과 낙망과 불안은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성서언어연구반 엮음,
 『한반도에서 다시 살아나는 여성시편』(여성신학사, 2005), 72쪽)

- 2분간 묵상 -

시편 3편 차별당하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마진영/ KCCJ

- 1 하나님, 우리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우리를 차별하고 무시하며 행여나 제 자리를 빼앗길까봐
일어서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 2 우리를 향해 빈정대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 3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가 떳떳하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니,
- 4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 5 우리가 설자리를 잃어 좌절하여도
또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 6 우리를 차별하고 무시하면서 사방에서 공격하는 자들이
천만 명이라 하여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 7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모든 반대자들의 주장을 막아 주시고,
권력만을 따라가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길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8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평등의 권리를 내려주십시오.

(위와 같음, 127쪽)

- 2분간 묵상 -

몸의 고백(엘름댄스) 임선미

말은이: 엘름 댄스는 ‘느릅나무 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체르노빌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였던 핵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었습니다. 정부는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인공구름을 만들어 느릅나무 숲에 방사능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인간 대신에 느릅나무가 희생당한 것입니다. 반핵평화주의자였던 조안나 메이시는 이 느릅나무 숲을 애도하며 춤을 제안했고, 다양한 공동체가 아직도 함께 춤추고 있습니다.

함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몸의 고백에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두 줄로 원을 만들고, 음악에 맞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안쪽 원에 있는 이들을 위한 동작>

- 1. 오른쪽으로 네 걸음 이동 후- (멈춘 상태) 팔을 높이 들어 좌우로 흔들기

2. 왼쪽으로 네 걸음 이동 후- (멈춘 상태) 팔을 높이 들어 좌우로 흔들기
3. 원 안쪽으로 네 걸음 모여 이동 후- (멈춘 상태) 팔을 높이 들어 좌우로 흔들기
4. 원 바깥쪽으로 네 걸음 모여 이동 후- (멈춘 상태) 팔을 높이 들어 좌우로 흔들기

〈바깥쪽 원에 있는 이들을 위한 동작〉

1. 왼쪽으로 네 걸음 이동 후- (멈춘 상태) 팔을 높이 들어 좌우로 흔들기
2. 오른쪽으로 네 걸음 이동 후- (멈춘 상태) 팔을 높이 들어 좌우로 흔들기
3. 원 안쪽으로 네 걸음 모여 이동 후- (멈춘 상태) 팔을 높이 들어 좌우로 흔들기
4. 원 바깥쪽으로 네 걸음 모여 이동 후- (멈춘 상태) 팔을 높이 들어 좌우로 흔들기

산 에 피 어 도 꽃 이 고 들 - 에 피 어 도 꽃 이 고 길 가 에 피 어 도 꽃 이 고
 봄 에 피 어 도 꽃 이 고 여 름 에 피 어 도 꽃 이 고 물 - 래 피 어 도 꽃 이 고

모 두 다 꽃 이 야 아 무 데 나 피 어 도 생 긴 데 로 피 어 도 이 름 없 이
 모 두 다 꽃 이 야 아 무 데 나 피 어 도 생 긴 데 로 피 어 도 이 름 없 이

피 어 도 모 두 다 꽃 이 야
 피 어 도 모 두 다 꽃 이 야

* 모두 다 꽃이야 (작사/작곡/편곡 류형선, 노래 2013 국악방송 추천 아이들 ver.)

<https://www.youtube.com/watch?v=P9u5wxrHUvk>

파송사 김주연

말은이: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 모두가 참된 자유와 평등, 평화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함 께: 우리가 오늘 함께한 경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롬11:22)”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설레는 발걸음으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아멘

공동 축도 함 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며, 우리를 인자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현대인성경/ 민수기 6:24-26)

閉会礼拝

司式者：鄭玉鎮 (NCCK)

(*椅子にスカーフが巻かれています。参加者は並んで入場し、ご自由に着席してください。
スカーフは礼拝の最後の「体の告白」の時に使用します。

礼拝への招き — — — 司式者

司式者：イエス・キリストのみ名によって、あなたがたを今、ここへお招きいたします。

「わたしはぶどうの木、あなたがたはその枝である。わたしにつながっていなさい」と言われます。(ヨハネによる福音書・15：5)

会衆：互いの声に耳を傾けながら、あなたに接ぎ木されることを望みます。あなたの恵みの内に留まり、信仰によって生きようお導きください。(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11：23) また、わたしたちが互いを支え合い、歩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ともに：神は霊である。だから、神を礼拝する者は、霊と真理をもって礼拝しなければならない。アーメン。(ヨハネによる福音書・4：24)

讚美 “愛が勝る” — — — 共に

愛が勝る 愛がいちばん

どんな強い憎しみも愛には勝てない。

平和が勝る 平和がいちばん

どんな強い暴力も平和には勝てない。

すべて手放し いのち見つめよう

気高い道を進むこの愛が勝る。

正義が勝る 正義がいちばん

どんな辛い現実も正義には勝てない。

夜明けの光 輝き見つめよう

心の中消えないこの愛が勝る。

さあ、今、共に 行こう。

手をつないで、声をあげよう。

愛が勝る 愛がいちばん

どんな強い憎しみも愛には勝てない。アーメン。

♩ = 100 장영하

G B C Am D7 G
사랑이 이긴다 - 사랑이 이긴다 -
평화가 이긴다 - 평화가 이긴다 -
정의가 이긴다 - 정의가 이긴다 -

G B C Am7 G/D D7 G
세상에 아무리 강한 힘도 사랑이 이긴다 -
세상에 아무리 강한 폭력도 평화가 이긴다 -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현실도 정의가 이긴다 -

CMaj7 Am7 Em CMaj7 D7 G
모든 걸 내려놓고 - 생명을 바라보자 -
낮은 밤타오르는 - 불꽃을 바라보자 -

CMaj7 Am Em CMaj7 D7 G
숭고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의 사랑이 이긴다 -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우리 의 사랑이 이긴다 -

Em D/F# G Am G/B C6
그래 이 세 함께 가보자 두

Em D/F# G Am G/B C6 D
손 꼭 잡고 함께 외치자 - -

D.C. of Fine

女性たちの主祈一禱文 — — — 崔恩榮(NCCK), 共に

私たちの神、天から私たちを見守る方！
私たちを通してあなたのみ名があがられますように。
私たちの真ん中に、神の国が来ますように、
あなたのみこころに、わたしたちの人生が覚えられ、
わたしたちの人生に、あなたのみこころが行われますように。
今日、あなたの恵みが満ちている日々の糧を感謝いたします。
わたしたちに必要な糧が奪われないように守ってください、
各自が必要な糧を求めすぎないようにさせてください。
わたしたちが、わたしたちに罪をおかした者をゆるすために、
罪をおかした者がその過ちを認識し、
悔い改めとゆるしを求め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強い者の失敗を弱い者のせいにならないようにし、
女性を試練に導く存在、誘惑する存在としての
深い憎しみと差別から私たちを直ちに救い出してください。
差別のないみ国と力、平和の栄光が
わたしたちと共におられる神に限りなく永久に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

◎ 「女性たちの主祈-禱文 (주기-도문)」 についての説明

主の祈りのいくつかの節は、強者の言い訳を合理化する目的で歪めて解釈されてきました。韓国の教会内の「女性主義連合礼拝共同体」は2021年、女性主義的な礼拝を準備する際、女性の視点と経験を反映して再解釈した「女性たちの主祈-禱文 (주기-도문)」を発表しました。

「主-祈禱文 (주-기도문)」あるいは、「主の祈り (주의 기도문)」という言葉は「主祈-禱文 (주기-도문)」として表現した背景には、女性に「ジュギ(주기, empowering、力を与える、)」を望んでいたためです。奪われたものを「返して-もらう」、女性に許されない領域での「^{권한}権限を-与える」、自分が持っているものに感謝しつつ、他者に「^{주기}分け-与える」という意味です。私たちは、この祈りを通して、進歩的な女性主義の動きと実践を期待しています。

聖書朗読及び黙想

1. 詩編 43 編、女性のための祈り「わたしたちは立ち上がる」 — — — 李熙善(NCCK)、 NCCJ1 名

神よ、この世は不公平です。
理由もなく、わたしたちを卑下し、劣った存在として扱っています。
だから、わたしたちは神に呼びかけます。

神よ、わたしたちの嘆きを聞き、
高慢で不正な者たちからわたしたちを救い出してください。
神に見捨てられたかのように、わたしたちは悲しみを抱え、
不正な者たちの圧迫により、気力を失ってきました。
あなたの光と真実で、わたしたちは勇気を持って、
あなたの聖なる山や天幕に、わたしたちを伴ってください。
そのとき、わたしたちは神のもとに近づき、
喜びの心で全力を尽くして、琴を奏でてあなたを賛美します。
わたしたちの悲しみや絶望、不安は
朝の霧のように消え去り、わたしたちを助ける
神を讃美し、たたえ続けるのでしょうか。

(韓国女神学者協議会聖書言語研究会編、『한반도에서 다시 살아나는 여성시편
朝鮮半島で再び生きる女性詩篇??』, (女性神学社, 2005), 72頁)

— 2 分間黙想 —

2. 詩編 3 編、差別を受けるわたし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る神さま——馬鎮英(NCCK)、
NCCJ1 名

神よ、わたしたちを軽んじる者たちがどうしてこんなにも多いのでしょうか？
わたしたちを差別し、軽んじ、もしや自分の居場所を奪われることを恐れ立ち上がる人がど
うしてこんなに多いのでしょうか？
わたしたちに向かって皮肉を言う人が、どうしてこんなに多いのでしょうか。
神よ、あなたは私たちの保護者、
わたしたちの人権を回復してくださる方、
わたしたちが堂々と生きるために支えてくださる方、
わたしたちが神に向かって声をあげるとき、
いつも私たちの側で答えてくださいます。
わたしたちが居場所を失い、絶望するときも、
再び立ち上がることはできるのは、
神がわたしたちを支えてくださるからです。
わたしたちを差別し、軽んじ、包囲する者たちが
何千万だとしても、わたしたちは恐れません。
神よ、立ち上がってください。わたしたちの神、
わたしたちの心と身体を用いてください。
ああ、神よ、
すべての反対側の主張を退けてくださり、
権力だけを追いかけて、

わたしたちを打ち倒そうとする者たちの
 道を阻んでください。
 神よ、わたしたちに
 人間としての平等な権利をお与えください。 (上同, 127 頁)

— 2 分間黙想 —

体の告白 (エルムダンス) — — — 林善美(NCCK)

担当者：エルムダンスは「ハルニレの木ダンス」とも呼ばれます。1986年4月26日、旧ソ連のチェルノブイリ地域で世界最大規模だった原子力発電所が爆発し、数万人の人が放射能に被曝して亡くなりました。政府は人的被害を減らすために人工雲を作り、ハルニレの森に放射能雨を降らせました。人間の代わりにハルニレの木が犠牲になったのです。反核平和主義者であったジョアンナ・メイシーは、このハルニレの森を悼んでダンスを提案し、様々な共同体が今でも共に踊っています。

共に：いまだにわたしたちの生活の中で、差別や憎しみ、暴力によって犠牲となる人々が存在することを覚え、共に踊ります。癒しと回復のための体の告白に喜んで参加します。

*二つの円を作り、音楽に合わせて慣れるまで繰り返します。

すべては花

山に咲いても花 野原に咲いても花 道沿に咲いても花 すべては花
 どこに咲いても そのまま咲いても 名前がなくても すべては花
 春に咲いても花 夏に咲いても花 密かに咲いても花 すべては花
 どこに咲いても そのまま咲いても 名前がなくても すべては花

J=95

Eb Bbm Ab Eb Eb Bbm Ab Eb Eb Bbm Ab Bbm

산 에 피 어 도 꽃 이 고 들 - 에 피 어 도 꽃 이 고 길 가 에 피 어 도 꽃 이 고
 불 에 피 어 도 꽃 이 고 여 름 에 피 어 도 꽃 이 고 물 - 래 피 어 도 꽃 이 고

Ab Bbm Eb Eb Bbm Ab Eb Eb Bbm Ab Eb Eb Bbm

모 두 다 꽃 이 야 아 무 데 나 피 어 도 생 긴 데 로 피 어 도 이 름 없 어
 모 두 다 꽃 이 야 아 무 데 나 피 어 도 생 긴 데 로 피 어 도 이 름 없 어

Ab Bbm Ab Bbm Eb

피 어 도 모 두 다 꽃 이 야
 피 어 도 모 두 다 꽃 이 야

<内側の円にいる人のための動作>

1. 右に4歩移動した後、(止まった状態で)腕を高く上げて左右に振る。
2. 左に4歩移動した後、(止まった状態で)腕を高く上げて左右に振る。
3. 円の内側に4歩移動した後、(止まった状態で)腕を高く上げて左右に振る。
4. 円の外側に4歩移動した後、(止まった状態で)腕を高く上げて左右に振ります。

<外側の円にいる人のための動作>

1. 左に4歩移動した後、(止まった状態で)腕を高く上げて左右に振る。
2. 右に4歩移動した後、(止まった状態で)腕を高く上げて左右に振る。
3. 円の内側に4歩移動した後、(止まった状態で)腕を高く上げて左右に振る。
4. 円の外側に4歩移動した後、(止まった状態で)腕を高く上げて左右に振る。

* “すべては花” <https://www.youtube.com/watch?v=P9u5wxrHUvk>

派遣 — — — 金珠蓮(NCCK)

担当者：神に接ぎ木され、皆が真の自由と平等、平和の経験を分かち合いました。神がわたしたちを通して、新しい天と地を造られることを信じます。宣言します。平安のうちにお帰りください。

共に：わたしたちが今日一緒にした経験を覚えています。「あなたがたが引き続き神の恵みの内にいれば、神はあなたがたに慈しみ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ローマ 11:22)」というみ言葉を覚えて、すべての差別と憎しみに反対します。あなたのみ心に従い歩んでいきます。ときめく足取りで、わたしたちが属する教会と世の中に進み行きます。神よ、わたしたちと共にいてください。アーメン。

共同祝祷 — — — 共に

神がわたしたちを祝福し、わたしたちを守られるように。神がわたしたちに憐れみと恵みを与えられるように。神がみ顔をわたしたちに向けて、わたしたちに平安を賜るように。アーメン。(民数記・6：24-26)

ア ジ ア の 涙

ザ・イカイノ・バンド

1. ネオン きらめく 都会の夜を
さまよう 異国の娘たち
ふるさとに 残した 母のため 子のために
声もなく 夜の街に 消えてゆく
泣かないで 私のために
明日は帰ります 子守唄歌いに
きっと 明日は
2. 新地の筋から チャングが響き
トラジの歌が 聞こえます
ふるさとで 待っている 父のため 家族のためなら
タヒャンサリ(他郷暮らし)にも 負けないで 生きてゆく
泣かないで 私のために
明日は帰ります なつかしいコヒャン(故郷)へ
きっと 明日は



※ ウルジマラヨ イルムオムヌン ナルウイエ
泣かないで 名もない 私のために
ウルジマラヨ イルムオムヌン ヨジャウイエ
泣かないで 名もない 女のために

Do't cry for me
Do't cry Mama
Do't cry for Maria
Do't cry Jesus
Do't cry for Asia
Do't cry Jesus

この指とまれ

1. 誰かがどこかで ねらっている 罪のない人とし
 長くもきれいでないけれど 大切な人とし
 指紋がイヤなら 国へ帰れと
 誰かが 誰かが 言いました けれど私が
 生まれた この街 この日本
 どこへ帰れと 言うのですか みんな一緒に
 この指とまれ

この指とまれ



- 誰かがどこかでねらっている 罪のない 人とし指
 長くもきれいでないけれど 大切な 人とし指
 指紋がイヤなら 国へ帰れと誰かが言いました
 けれど私が生まれた この街 この日本
 みんなと一緒にこの指とまれ
- 幼い頃 ねごとやめさせた 小さな人とし指
 スキな想い出が いっぱいある 大切な人とし指
 “外国人向けですか ねえ”と誰かが言いました
 けれど私が生まれた この街 この日本
 みんなと一緒にこの指とまれ
- 変な名前と評判と流儀の ぶれまじりの人とし指
 くちくちと負けずに奮闘した 大切な人とし指
 腹いせの焼肉屋が 勝手な店と誰かが言いました
 けれど私が生まれた この街 この日本
 みんなと一緒にこの指とまれ
- キチンとけたり ぬいぐるみで遊ぶ ねごと指
 一生懸命汗を流す ジョギングの人とし指
 操縦にはまると 切れた指を指たさげ言いました
 決してくじけたりは 忘れた言いました
 けれどこの指とまれ
- 生まれた時の ストップ あっちゃんこの指とまれ
 この世に たった1つだけ 大切な人とし指
 秀吉の耳帯の指縁に 染み付いた
 けれど 神様の贈り物 美しい指縁
 けれどこの指とまれ
 みんなと一緒にこの指とまれ

第 10 回 韓・在日・日 NCC 女性委員会 連帯交流会議宣言文

韓・在日・日 NCC 女性委員会連帯交流会議（以下、連帯交流会議）は、1996 年から日本軍「慰安婦」問題、日本の歴史修正教科書問題、憲法 9 条改悪反対運動、在日韓国・朝鮮人の人権問題、靖国神社公式参拝反対運動、米軍基地と軍事主義反対、朝鮮半島の平和統一と北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努力など、さまざまな課題を討議し、共に両国の和解と北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道を歩み続けてきた。

今回の第 10 回連帯交流会議は、「和解の道のり、私たちはどこに？」というテーマで 2017 年 11 月 28 日(火)～30 日(木)まで、韓国で開催された。日本側 8 人、在日側 6 人、韓国側 22 人が参加した今回の会議では、エキュメニカル連帯と女性の平和志向を取り込んだ礼拝と聖餐をはじめ、主題講演と現場報告、日本軍性奴隷制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 1311 回定期水曜デモ参加と発言、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見学、談話会、聖書研究、平和ワークショップなどが行われた。

私たちは今回の出会いから今まで続いてきた連帯交流会議の成果を振り返り、私たちの前に置かれた課題を共に確認した。戦争に向かっている朝鮮半島をめぐる北東アジアの政治的状況、韓日間の歴史問題、在日韓国・朝鮮人に対するヘイトスピーチ、日本の安倍政権の軍事主義と右傾化、北東アジアの軍事的緊張と 12.28 韓日日本軍「慰安婦」合意（以下 2015「日韓合意」）など、実に多くの問題が山積みである。2017 年 11 月現在、私たちは次の課題に直面している。

第一、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には、日本政府の「真の謝罪」が不可欠であると再確認した。これは 2015 年の「日韓合意」によっては解決されなかった問題であり、公式謝罪、明確な責任意識、再発防止の意志を明らかに表わすことだけが歴史解決の第一歩となる。

第二、私たちは国民主権を蔑ろにする国家の暴力と、これを正当化する一連の国家主義イデオロギーに対して、抵抗の運動を繰り広げる。国益の名で行われる軍事競争と戦争の様相を告発し、反戦平和の文化を作り上げる努力を韓日キリスト者女性たちが教会と社会に広めていく。

第三、私たちは在日韓国・朝鮮人が経験している民族差別の闘いに参与する。また、教会と社会に蔓延している様々な差別と排除の暴力に対して抵抗する運動を展開し、多様性が尊重される社会、社会的少数者の権利が保障される社会を作り上げる努力をする。

第四、このために市民社会だけでなく、国際社会の女性と積極的に連帯することを決意し、次のように具体的な実践事項を決議した。

<実践事項>

1. 私たちは、両国が直面している歴史修正問題、歴史教科書編纂の問題を公けにしていく。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に、日本政府の真の謝罪を要求し、日韓政府が 2015「日韓合意」を再協議することを求める。

2.私たちは、より主体的に北東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巡礼の機会を設け、積極的に参加する。また、女性、平和、安全保障に関する国連安保理 1325 決議(UN SCR1325)の実現のために、平和樹立に関する意思決定機関に女性が積極的に参加することを求める。

3.私たちは、教会改革のために、全ての教会に多くの女性が意思決定機関に参加できるよう積極的に求める。

4.私たちは、ヘイトクライム・ヘイトスピーチに表れるすべての差別と憎悪に反対する。在日韓国・朝鮮人に対して行われる嫌韓、憎悪とメディアの暴力、そして朝鮮人学校に対する不当な差別と憎悪を拒否し、また人権侵害と差別に反対し行動する。

5.私たちは、両国内の市民社会との連携を強化する。世界非核化、脱原発、反戦平和など多様な分野で活動する女性との交流を拡大し、連帯していく。

6.私たちは、北東アジアの平和を脅かす日本の憲法 9 条の改悪に反対する。また、そのために世界エキュメニカル教会とパートナーに連帯と協力を積極的に要請する。

2017 年 11 月 30 日

韓・在日・日 NCC 女性委員会連帯交流会議参加者一同

제 10 차 한·재일·일 NCC 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 선언문

한·재일·일 NCC 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이하, 연대교류회의)는 1996 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수정교과서 문제, 헌법 9 조 개악 반대운동, 재일한국·조선인 인권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 운동, 미군기지와 군사주의 반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과제를 토의하며 함께 양국의 화해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길을 걸어왔다.

이번 제 10 차 연대교류회의는 “화해의 여정, 우리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2017 년 11 월 28 일(화)-30 일(목)까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일본 측 8 명, 재일 측 6 명, 한국 측 22 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는 에큐메니칼 연대와 여성의 평화지향을 담은 예배와 성찬을 시작으로, 주제강연과 현장보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1 차 정기수요시위 참여와 발언,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탐방, 집담회, 성서연구, 평화워크숍 등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번 만남에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연대교류회의의 성과를 돌아보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함께 확인하였다. 전쟁으로 향해가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 한·일간의 역사 문제,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hate speech,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주의와 우경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이하, 2015 한일합의) 등 실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화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참된 사죄’를 실천하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것은 2015 한일합의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식 사죄, 분명한 책임 의식, 재발 방지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낼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시작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국가의 폭력과 이를 정당화하는 일련의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며, 저항할 것을 다짐하였다. 국익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군사경쟁과 전쟁의 양상을 고발하고, 반전 평화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노력을 교회와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한다.

셋째, 우리는 재일한국·조선인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고통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차별과 배제의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넷째, 이를 위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여성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결의하였다.

<실천사항>

1. 우리는 양국이 당면한 역사 왜곡 및 수정 문제, 역사교과서 편찬 문제를 공론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며, 한일 정부가 2015 한일합의를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보다 주체적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순례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UN SCR1325)의 실현을 위해 양국 정부에 갈등 분쟁 해결과 평화 수립에 관한 의사 결정기구에 여성을 적극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교회 개혁을 위해 모든 교회에 많은 여성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한다.
4. 우리는 모든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 재일한국·조선인들에게 이루어지는 험한, 조선인학교에 자행되고 있는 부당한 차별과 혐오, 미디어 폭력을 거부하며 인권 침해를 반대하고 행동한다.
5. 우리는 각국 내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세계비핵화, 탈원전, 반전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연대해 나간다.
6. 우리는 동북아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평화헌법 9 조의 개악을 반대한다. 또한 이를 위해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와 파트너에게 연대와 협력을 적극 요청한다.

2017년 11월 30일

한·재일·일 NCC 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 참가자 일동